

테슬라 '실적 뚜껑' 열리는 날... 주가·마진서 '검은 연기'

1분기 '어닝쇼크' 예고

신차 부재·양산 실패로 판매부진
수요↓ 재고↑ 실적↓ 악순환 늪
올해 들어 주가 43% '곤두박질'
15개월만의 최저...마진 반토막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갖가지 악재에 휘말렸다. 수요 감소, 판매 부진, 재고 증가와 판매 가격 인하, 실적 부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른바 '비처스 사이클(Vicious cycle·악순환)'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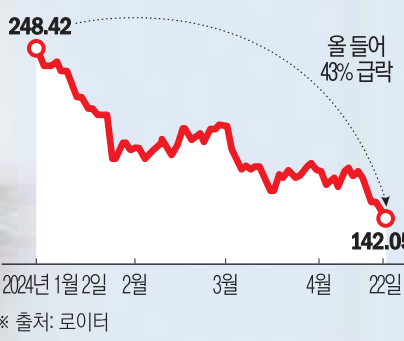
22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오토모티브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1분기 실적발표를 하루 앞둔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40% 떨어진 142.05달러에 마감했다. 주가는 12일부터 7거래일 연속 하락한 끝에 15개월만의 최저치로 추락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43% 급락 중이다.

시가총액도 4524억 달러(약 623조 8600억 원)까지 급감했다. 시총 기준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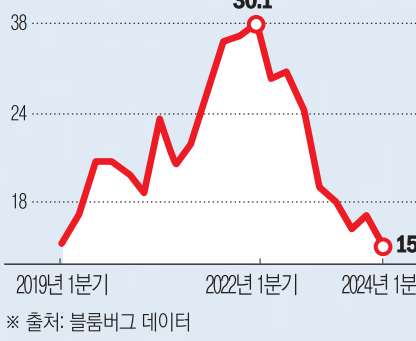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테슬라 주가
(단위: 달러, 현지시간 기준)



가격 변동에 따른 테슬라 판매마진율
(단위: %)



마트와 엑손모빌, 유나이티드헬스에 이어 15위다. 바로 전날에는 그나마 13위였다. 테슬라는 2021년 11월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해 미국 증시를 이끄는 7개 대형 기술주인 매그니피센트7(M7)에 들었으나, 이제 시총이 전성기 대비 반 토막 나면서 그 지위가 위태로워졌다.

주가는 테슬라를 둘러싼 갖가지 악재가 쏟아지면서 내림세다. 먼저 글로벌 전기차 산업 수요 감소로 인해 작년 하반기부터 테슬라 판매가 부진했다. 이달 초 테슬라는 "올해 1분기 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한 38만 6000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판매 부진은 곧 재고 증가를 불러왔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택했다. 미국과 독일에 이어 중국에서까지 가격을 낮췄다. 국가와 환율·모델별로 차이가 있으나 우리 돈으로 평균 300만 원 안팎 인하했다.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2022년 상반기부터다. 이때부터 1대당 판매 마진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다. 2022년 1분기 기준, 테슬라의 판매 마진율은 30.1%에 달했다. 올해 1분기에는 이 비중이 15.1%까지 주저앉았다. 2년 만에 마진율을 반 토막 낸 셈이다.

테슬라는 결국 1분기 실적 발표를 일주

일 앞둔 16일 전 세계 임직원(약 14만 명)의 약 10%를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곧바로 투자업계에서는 "테슬라가 1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감원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사실상 회사가 어닝쇼크를 예고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로이터는 '테슬라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그 배경으로 신차 부재와 양산 실패 등을 꼽았다.

먼저 글로벌 전기차 수요 중심이 중저가형으로 이동하면서 비싼 테슬라가 외면받기 시작했다. 모델3의 아래급으로 다시 한번 테슬라의 부흥을 끌어줄 중저가 차종 '모델2'도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24년 출시'를 공언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테슬라는 "모델2는 2026년 이후에나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큰 기대를 모았던 사이버버트는 현재 판매 중이나 사실상 양산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차체에 스테인리스강 소재를 쓰면서 성형과 조립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가격도 애초 공언했던 것보다 15% 비쌌다. 연간 14만 대는 커녕 2만 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시와 함께 머스크 역시 "우리가 무덤을 판다"고 말할 정도였다.

김준형 기자 junior@

1.1兆 묶인 테슬라 ELS 투자자들... 원금손실 구간 근접

조기상환 연이은 불발로 투자금 회수 차일피일
주가하락 지속 땀 홍콩 ELS 악몽 재현할 수도

테슬라의 주가 부진에 테슬라 주식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9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주식은 테슬라로, 보관금액은 총 88억 2410만 달러에 달한다. 테슬라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지난

해 7월부터 현재까지 순매수 금액은 6억 4247만 달러로, 전체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 3위다.

직접투자뿐 아니라 ELS를 통해 테슬라에 투자한 사람들의 '녹인(Knock-in)' 불안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발행된 테슬라 ELS 미상환 잔액은 약 1조 1300억 원 규모다. 통상 ELS는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 기회가 주어지는데,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조기상환이 불발되며 미상환 잔액이 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는 연 20%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제시해 주목받은 바 있다. ELS는 기초자산 옵션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는 만큼 주가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 가격이 올라가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가지

수형 ELS 목표 수익률이 연 10%대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이다. 특히 ELS는 테슬라 주가가 하락해도 조기상환 요건만 충족한다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테슬라 주가가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조기상환이 미뤄지고 원금이 손실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테슬라 ELS 녹인 가격은 대체로 최초 발행가격의 30~50% 수준이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7월 293.34달러를 기록했다가 22일(현지시간) 142.05달러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최고점 대비 최근 최저점 주가 하락률이 이미 50%를 넘겼다. 이에 테슬라 ELS 원금손실 발생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혜원 기자 hwyoon@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대로운 미래의 기회를

- 개인연체제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경영담보 대출발급금

잠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휴 저활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기업구조조정신자본펀드(온기업)
- 경로 선택금융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재택·휴가’ 근무여건 돈으로 따지면… 소득 불평등 커졌다

한은 ‘BOK 이슈노트’ 보고서

유연·재택근무, 유급휴가 등 근무여건까지 돈으로 따지면 소득 불평등이 더 악화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직업군이 그 반대의 직업군보다 시간당 임금이 더 많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23일 ‘BOK 이슈노트 - 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근무여건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여 소득 불평등을 새롭게 측정할 경우 소득 5분위배율이 4.0에서 4.2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근무여건은 유연한 근무조건, 업무 자율성, 발전 가능성 등과 같은 비임금 만족감을 의미한다. 근로자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임금보다 근무여건을 중시하는 경향은 짙어지고 있다.

연구팀은 분석 결과 근무여건 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은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 △디자이너 등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활동이 적고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점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업무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근무여건 지수가 낮은 직업들은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물품 이동

상하위 소득 4→4.2배 확대
남녀 격차는 되레 3%p 줄어

여성·저연령·고학력 근로자
연봉만큼 근무여건에 가치 부여
법률전문가·디자이너 등 선호

장비 조작용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제관원 및 판금원 등으로 조사됐다.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며, 단순 반복 위주의 강도 높은 업무가 많은 특징이 있다.

연구팀은 여성, 저연령, 고학력 근로자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여성의 경우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고, 유연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일자리를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고학력 근로자들은 육체적 능력을 덜 요구하는 인지적 일자리,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전문직 일자리에 더 많이 근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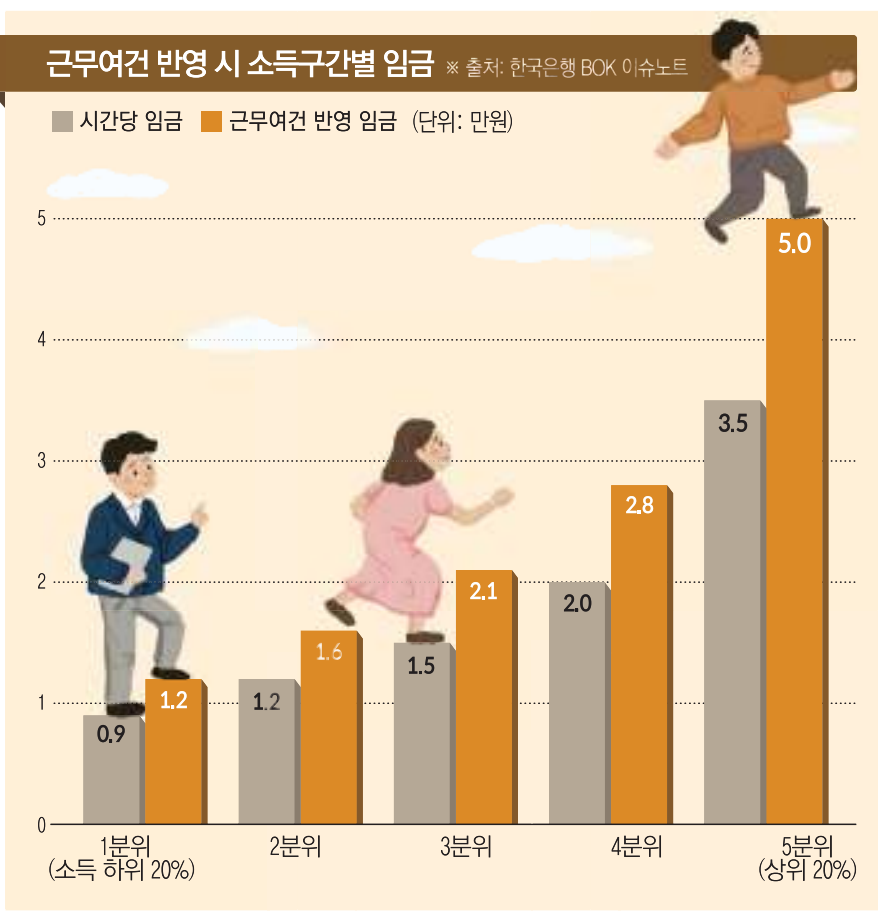
연구팀은 근무여건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소득분위별 격차를 살폈다. 그 결과 소득 1분위 시간당 임금이 33.3% 증가하는 반면 소득 5분위는 42.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남성과 여성 간 임금 격차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연구

됐다.

연구팀은 “남성의 시간당 임금이 38.8%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44.8% 상승했다”며 “남성 대비 여성의 소득 수준은 근무여건 반영 전 70.5%에서 반영 후 73.6%로 3.1%포인트(p)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들이 근무여건이 높은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할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성별 임금격차 중 일부가 근무여건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연구팀은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따라 근무방식의 변화가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근무여건 개선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만 보다 유연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작년 늘어난 취업자 93% 여성 남성 전업주부 20만명 첫 돌파

女, 30대·고학력·기혼자 중심 취업
3월 女 18만명 늘때 男 7000명 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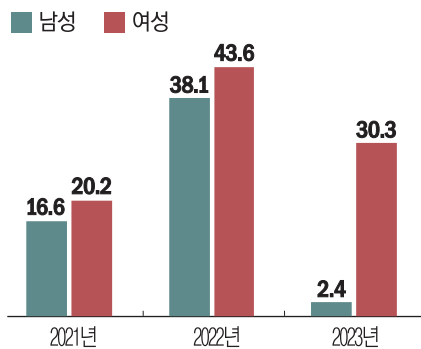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여성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해 남성을 크게 압도했다. 여성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한국경제기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늘어난 취업자 32만7000명 중 여성이 30만3000명으로 92.7%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 증가세는 30대·고학력·기혼 여성이 주도했다. 30대 남성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30대 여성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성별과 관계없이 저학력(고졸 이하) 취업자는 줄고, 고학력(대졸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다. 다만 늘어난 고학력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일 정도로 고학력 여성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또 지난해 늘어난 여성 취업자 30만3000명 중 69.9%인 21만2000명이 기혼 여성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여성 취업자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분 중 여성 비중은 103.5%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여성이 17만9000명 늘고 남성은 오히려 7000명 줄어들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분 중 여성 비중이

성별 취업자 증감
(단위: 만명, 전년 대비 기준)



100%를 초과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확대되면서 육아·가사 활동을 하는 남성 전업주부도 늘고 있다. 지난해 남성 전업주부는 21만8000명으로,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다. 남성 전업주부 수는 2019년 15만5000명, 2020년 16만3000명, 2021년 19만4000명, 2022년 19만8000명, 2023년 21만8000명 등 매년 증가세다.

경총은 여성 취업자 증가 이외에도 최근 고용 흐름 특징으로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 청년고용 부진 등을 꼽았다.

김선에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 19 이후 인구·산업구조 전환이 빨라지면서 고용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출산율 반등과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문화 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웅 기자 pmw7001@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New & new

NH농협은행의 새로운 모델 고문정과
늘 새롭게 변화하는 NH올원뱅크의 만남

금융부터 생활서비스까지
새로움이 가득한 디지털 뱅킹이 시작됩니다

금융세상을 키우는 올원적 대담

NH올원뱅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4-2180 (2024.3.28 ~ 2025.3.26)

NH농협은행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글 쓰는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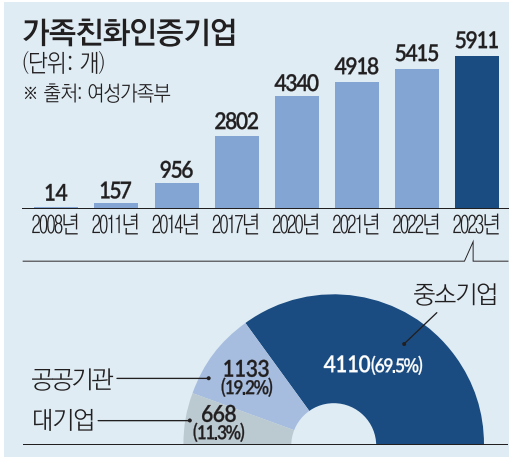
- ㉠ 법인세·소득세 파격적 감면
- ㉡ 유연근무제 의무 도입해야
- ㉢ 남은 동료 확실한 보상·배려

저출산 위기가 심각하다. 아직도 출산 이후 육아를 위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퇴사하는 쪽은 주로 여성들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출산·육아에 의한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재를 잃은 기업은 발전 동력을 상실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직원들에게 저출산 복지 혜택을 적극 제공하는 기업과 출산·육아 직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2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전년보다 496개 늘어 누적 5911개다. 시행 첫해인 2008년 14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족친화기업이 15년간 420배 넘게 많아진 것이다. 인증기업 중 중소기업은 4110개(69.5%)다.

인증기업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직원들은 검진수가 할인 등 건강지원 의료혜택을 받는다. 관광·문화분야(입장료·숙박료 할인) 등에서도 혜택이 있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인증기업에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등 일



인증기업 15년새 420배 늘었지만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뒤틀림질’
정부지원 사업 가산점 등 혜택 한계
기업 ‘출산지원금 지원’ 비과세 추진
여가부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노력”

·가정양립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이처럼 그간 가족친화기업이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합계출산율은 1.15명(2008년)에서 0.72명으로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인증기업이 받는 혜택들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다. 주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상담·교육, 정부 표창 등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증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만 체감하는 혜택이 별로 없다”며 “단순한 가산점 부여가

아니라 가령 육아휴직으로 기업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그래야 휴직한 직원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기업이 자율실천목표제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인증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직원들에게 저출산 복지



인증기업 주요 인센티브

	내용	지원기관
공통	출입국 우대	법무부
	물품구매·일방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가산점	조달청
중소·중견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금리우대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신한은행 등
	산업기능요원 인력 지원	병무청
공공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족친화인증여부를 종합 고려하여 평가	기획재정부
인증기업 근로자·가족	검진수가 할인 등 건강지원의료혜택 제공(지자체별)	각 지자체



가족친화인증제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제도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다자녀 직원에게는 소득세 등을 감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IMM, 농기계 기업 TYM 등 기업들의 파격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 기업들의 선의에 의한 ‘통 큰 지원’에 정부도 출산지원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차제에 기획재정부는 기업·직원의 추

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출산지원금이 인건비, 즉 비용으로 인정돼 기업으로서는 법인세가 줄어 들어 부담이 완화된다. 직원 또한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가령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원이 출산지원금으로 1억 원을 받는다면, 약 250만 원(현행 2750만 원)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올해 2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이 기업의 손실비용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했다”며 “법인세 감면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석주 기자 ssp@정유정 기자 oiljung@

“기업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 평가… “부부합산과세 도입” 의견도

저출산 해법, 전문가 의견은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가 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보다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자녀 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부부합산과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기금외재원다변화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나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원,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월 대체 인력 인건비 8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라며 “법인세 지원 같은 경우 작게 시작을 해도 기업 입장에서 현재 지원 수준에 비해서는 훨씬 크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법인세 파격 감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 육아휴직 후 돌아왔을 때 불이익이 아닌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는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지원보다 규모 크게 느낄 것
사회적 책임 기업 평가 반영 필요
육아전담 노동 가치도 인정해야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이 출산 장려 관련 정책 재원이 보다 다양화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관련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책에 쓸 수 있는 규모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우리가 그간 취업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과감한 재정 지원을 못했던 이유는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는 방식은 고용보험기금 일변도인 현행 일·가정 양립 지원의 재원을 조세지출로 다변화하는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휴직 관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데, 이 고용보험기금의 1차적인 목표는 실업급여, 실업수당 재원이기 때문에 그 재원이 그렇게 충분하지

가 않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아예 기업으로부터 걷는 조세를 차감해 주는 것이니까 관련 재원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등이 슈도피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감면 외 다른 측면의 기업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영세 규모 사업장은 세제 감면으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세수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도 세제 지원보다 다른 정책을 고려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규모가 작은 영세 기업들”이라면서 “이런 곳들은 인력난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감세를 해준다고 육아휴직 장려로 쉽게 연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친화인증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제는 기존 제도를 조금 바꾸고 개선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좀 더 파격적인 게 필요하다. 특수고용노동자처럼 국가에서

‘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
일정 수준의 수당·급여가 더 절실
세수감소 부작용… 맞춤형 지원을

정하는 ‘근로자’라는 개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육아기에는 일정 수준의 수당이나 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세 감면이 하나의 지원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게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법인세 감면 지원을 한다고 하면 기업별로 맞춤형으로 대응이 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세수가 줄어든다는 부작용 우려도 있다. 기본 세수가 들어온데서 그 예산을 갖고 사업을 꾸려나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부합산과세’로 육아전담 노동 가치 인정해야=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에게도 혜택이 들

아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초동의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에 시너지를 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복지가 기업과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집중돼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업주부 등 가사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경우 애를 낳아도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일하는 강모(여·36) 씨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에 맞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까진 괜찮지만,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감면한 세금을 프리랜서·자영업자·전업주부 등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처럼 ‘부부합산과세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가령 우리나라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5000만 원을 벌고, 부부 중 한 명이 1억 원을 벌 때 가구소득이 같아도 후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린다. 하지만 미국은 ‘부부합산과세제도’를 통해 같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전업 가사노동자의 가치를 인정해준다. 또 다른 변호사는 “부부합산과세제도는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는 사람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조세 제도”라며 “전업주부 등 육아에 시간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 비례적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며 당장 큰돈이 들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송석주 기자 ssp@정유정 기자 oiljung@

민생·경제법안 처리 급한데… ‘당 위기 수습’ 급급한 與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당 위기 수습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부터 원내대표 선거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당 위기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은 놓치는 모습이다.

윤재옥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 간담회를 열어, 당 위기 수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원장 선임 기준과 새 지도부 구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진들은 빠르게 새 지도부가 구성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 설치 쪽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처리해야 할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대응은 미흡해 보인다. 당 위기 수습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관행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법인데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 민생 법안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임시국회 회기와 의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중진 간담회에서 수습안 논의

“새 지도부 구성 서둘러야”

‘관리형 비대위’ 설치 가닥

여야, 채상병 특검 등 날선 대처

민생법안, 5월국회 처리 미지수

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과 같이 본회의에 올라갔거나 직회부한 법안 처리 차원에서 5월 2일과 28일 임시국회 개의 요구를 굽히지 않으면서 이날 회동도 빈손으로 끝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3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691건이다.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민생 법안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같은 날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018건이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과 같이 쟁점 현안을 두고 꾸준히 다투면서, 입장 차가 크지 않은 민생 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전인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평일 휴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단말기유동법 폐지(통신요금 인하)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으나, 23일 기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없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말까지 쟁점 법안, 정쟁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만 내고 있다. 이양수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전이라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찬성한다”고 했다.

이어 “총선의 민의는 22대 당선인에게 담긴 만큼 쟁점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집단적 총의를 모아 처리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야당에 “21대 국회가 정쟁이 아닌 민생 법안과 협치를 우선으로 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의장실 향하는 여야 원내대표



윤재옥(왼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상임위 현역 생활율 저조… 과방위는 ‘0명’ 국힘, 巨野 독주 막을 선수가 없네

17개 상임위 생활율 49% 그쳐
9곳 간사도 낙선하거나 불출마

국민의힘 현역의 국회 상임위원회 생활율이 최저 0%를 기록하는 등 여당은 4·10 총선 참패로 거야 독주를 견제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당 현역들의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야당의 입법강행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의 여당 현역 평균 생활율은 49%에 그쳤다. 그중 9개 상임위는 야당과의 협상을 이끌어 온 여당 간사가 낙선 혹은 불출마·낙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및 복원,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 등 지난해 거대한 이슈를 몰고 다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된 6명의 여당 현역 전원이 낙선 혹은 불출마(낙선 포함)했다. 생활율이 0%인 것이다.

위원장과 간사 모두 살아남지 못했다. 과방위원장인 3선 장재원 의원은 ‘중진 희생’에 응답해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우주항공청 설립법 통과를 위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간사로 활약한 박성중 의원도 힘지던 경기 부천을로 재배치된 뒤 낙선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은 한 상임위에 오래 머물며 전문성 및 정책 일관성을 기르곤 하는데, 이번 총선 참패로 차기 간사·위원장을 노릴 만한 실행력 있는 선수들이 많이 빠져나간 것이다.

그다음으로 낮은 생활율을 보인 곳은 복지위원회다. 복지위는 10명의 위원 중 8명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해 20%의 생활율을 기록했다. 김미애(부산 해운대) 의원과 백중현(부산 금정구)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

복지위 간사를 맡은 강기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창원 성산)에 공천을 받았지만, 민주당 허성무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그의 낙선으로 복지위 생활자언 초선만 이름을 올리게 됐다. 강 의원뿐 아니라 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도 22대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상임위 소집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 및 경제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정무위원회도 37.5% 생활율을 보이며 절반 이상이 낙선 또는 불출마했다. 간사인 강민국의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정무위에서 오래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아 온 유의동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부터 20대, 21대 국회까지 꾸준히 정무위원으로 활동해왔다. 20대 국회에선 정무위 간사와 법안소위 원장을 맡아 여야 물밑 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 외 상임위의 생활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기재위(60.0%) △운영위(63.6%) △국토위(72.7%) △법사위(75.0%) △정보위(80.0%) 순으로 낮았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금융의 모든 순간

헤아림

새로운 만남의 시작

또 다른 학기의 시작

첫 직장생활의 시작

모든 인생의 시작에는
든든한 보험이 필요하니까
NH굿스타트건강보험



※ 가까운 전국 농협협과 농협손해보험 FC지점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

다자녀가정(2인 1%, 3인이상 2%)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동의 시 5%

※ 상품가입 전 직권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하,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공제계약 포함)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4038호(2024.01.11~2025.01.10)

www.nhfire.co.kr
1644-9000

NH농협손해보험



| 자세히 보기 ▶ |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 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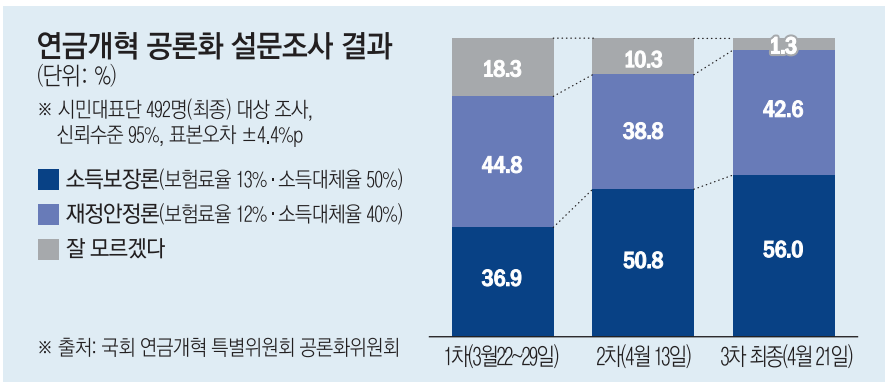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전날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를 발표했다. 1~3차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492명 중 56.0%가 3차 설문조사에서 ‘보험료를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다수안 기준으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

“다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원해” 연금행동, 기자회견서 개혁 촉구

전문가들 설문결과에 강한 반발 “적용 땀 누적 적자·재정소요 ↑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아냐”

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는 안을 지지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하는 개혁을 요구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 시민대표단 공론화는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을 사는 고



단한 시민들의 노후보장을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고, 노후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진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국회가 이제 시민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대표단 다수 지지를 받은 과제들은 대체로 미래 세대에 부담이 크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분이 보험료를 인상

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분을 역전하게 돼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분배기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올린다면 고소득자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현재 수급 범위를 유지하면서 보장수준만 확

대하면 2050년 연간 재정소요만 60조 원 을 넘게 된다.

이때문에 재정안정을 강조해온 전문가들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수안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란 게 국고 투입인데, 결국은 고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얻어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표단 속의 토론 의제를 정한 공론화위 의제속의단 구성이 편향적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의제속의단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장 선호했던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안을 시민대표단이 설명들을 기회조차 박탈했다”며 “이해관계자 중심의 의제속의단 결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생산자물가 4개월 연속 상승… 배춧값 급등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의 ‘3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농림수산물과 공산품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122.46(2015년=100)으로 집계, 전월(122.21)보다 0.2%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 지난해 12월(0.1%), 올해 1월(0.5%), 2월(0.3%)에 이어 4개월 연속 오름세다. 배추가 36% 김이 19.8% 오르는 등 농림수산물이 전월 대비 1.3% 상승했고, 공산품도 0.3% 뛰었다. 이날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배추가 쌓여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근로자 10명 중 1명 월급 100만원도 못받아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100명 중 9명은 월급 100만 원도 못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하반기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배달원 수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여파로 1년 새 3만 명 넘게 줄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는 1년 전보다 39만8000명 늘어난 2208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급이 100만 원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는 203만 명(전체의 9.2%), 100만~200만 원 미만 임금근로자는 254만1000명(11.5%)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20.7%가 월급이 200만 원에 못 미친 셈이다. 다만 1년 전보다는 해당 비중이 2.6%포인트(p) 감소했다. 100만 원 미만이 0.1%p 늘고, 200만~300만 원 미만이 2.6%p 감소한 영향이다.

400만 원 이상(544만3000명)은 전체의 24.5%, 300만~400만 원 미만(474만7000명)은 21.5%로 전년보다 각각 2.5%p, 0.7%p 증가했다. 200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0만원대 33%… 비중 가장 커 단순 노무 종사자 등 별이 적고 관리자 85% 400만원 이상 받아

~300만 원 미만(732만1000명)은 전체의 33.2%로 가장 많았지만 0.6%p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의 29.3%가 1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고, 서비스 종사자의 21.4%도 월급이 100만 원을 밑돌았다.

관리자 중에서는 1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없었고, 85.4%가 4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

직업 소분류별 취업자 수를 보면 경영관리사무원 244만6000명(8.5%), 매장판매종사자 160만8000명(5.6%), 작물재배종사자 139만1000명(4.8%) 순으로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경영관리사무원(+11만8000명),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전문가(+4만3000명), 돌봄 및 보건서비스종사자(+4만

2000명) 등이 크게 늘었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는 부동산 등의 경기부진 여파로 6만2000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2년 하반기 역대 최다(45만 명)를 기록했던 배달원 수는 작년 하반기 41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3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외식 등 외부활동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남성은 경영관리사무원 161만100명(10.0%), 자동차운전원 97만4000명(6.1%), 작물재배종사자 80만8000명(5.0%) 순으로 많았다.

여성은 매장판매종사자 94만 명(7.4%), 경영관리사무원 83만5000명(6.6%),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81만6000명(6.4%) 순이었다.

산업별 취업자는 음식점업이 164만 2000명(5.7%)으로 가장 많았고,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150만6000명(5.2%), 작물재배업 146만7000명(5.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건물건설업(-2만8000명),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소매업(-2만 5000명) 등에서 크게 줄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비수도권 GTX 성공 위해 대중교통 연계·통합요금제 구축해야”

한국교통연구원 ‘CTX 사업 추진 제언’

철도역까지 접근성 향상 필요성 등 지적

비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인 x-TX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철도역 중심 대중교통 연계와 통합요금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민 삼보기술단 부사장은 23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교통 4월 호에 ‘성공적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계획단계에서 사전 고려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 올해 1월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 위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2기 GTX 본격

추진과 함께 지방권 x-TX 도입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선정해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CTX로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이를 추진 중이며 민간에서 이탈 최초제안서를 제출했다.

김상민 부사장은 CTX가 건설되는 충청권은 인접 지방자치단체 도심지 간 거리가 직선으로 약 10~15km 떨어져 있고 도심지 간 중간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이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접 도시 간 이동속도 등에서 경쟁력 있

는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최고속도 운행이 가능한 구간이 생성돼 운행시간 단축으로 교통수요 전환에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또 대부분 지자체가 도시철도가 없어 철도교통보다는 도로교통이 주를 이루는 도시 특성상 신규 광역철도 건설 시 철도역까지의 접근성 증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TX의 경우 대전광역시만 도시철도를 운행해 환승이 가능하다.

김 부사장은 평균 역 간 거리는 도시철도와 광역철도의 중간인 2~3km 정도로 확보해 이용객 접근성에 유리하게 하고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 혹은 신규 수요응

답형 버스(DRT) 노선을 설치해 철도역으로 추가적인 접근성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최근 개통한 GTX-A 수서~동탄 구간도 통탄역까지 접근 대중교통 부족으로 이용객 전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타 대중교통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차 간격과 1일 운행 횟수 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GTX-B노선의 경우 첨두시 최소 운전시각 7.5분, 1일 최소 운행 횟수 92회 이상의 운행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CTX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사장은 또 관련 지자체가 수도권 통합요금제 같은 충청권 통합요금제를 구축하고 CTX 민간사업자에게 철도역 중심으로 몇 개의 마을버스 혹은 DRT 운영권을 부여해 철도역 접근성 개선이 가능토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관련 지자체 간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이용자, 지자체, 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는 CTX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2024 한국에너지대상 추천(신청) 안내



- 추천 기한

2024년 3월 ~ 2024년 4월 30일(화) 18시까지
- 포상 대상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등 국가 에너지 정책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일반국민, 기업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유공자(개인·단체)

구 분	포상분야	추천(신청) 기준
에너지 효율향상	개선 및 절감	산업·건물·수송 분야 등에서 고효율 설비 도입, 공정 개선 등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 사용량 절감 기여
	기술개발 및 보급	에너지의 공급·수요 관련 우수 기술(제품) 개발 및 국내·외 보급 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 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
	시책 및 홍보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정부 정책 수립·시행, 홍보·교육 등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 에 기여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산업발전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보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고도화 등 산업 발전 및 국가 정책 달성 에 기여
	시책 및 홍보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정책 수립·시행, 홍보·교육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인식 개선 에 기여

- 포상 종류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접수 방법

한국에너지대상 홈페이지(<https://energyaward.energy.or.kr>) 회원가입 후 해당 유공분야 작성 및 온라인제출 (2024년 4월 30일(화) 18시까지 접수)
- 문 의 처

한국에너지공단 홍보실 052-920-0302, 0308



中 경기침체에 고향 돌아간 청년들… 시골경제 ‘시골벽적’

상하이·선전 대도시 인력 유출
소도시 KFC·피자헛 입점 늘고
전기차 판매 비중도 30→35%

중국 젊은이들이 경기침체로대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향하면서 중국의 경제 지도가 바뀌고 있다. 소도시로 이주하면서 저렴한 생계비에 현금 여력이 생긴 청년들의 지갑을 공략하기 위해 각종 식음료 체인이 몰려드는 등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건설업체인 메트로데이터테크는 지난해 중국 금융 허브인 상하이와 기술 중심지인 선전에서 인력이 순유출됐다고 집계했다. 중국 경기 침체 속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가의 생계비를 감당하기 힘든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떠났기 때

문이다.

고향으로 돌아온 젊은이들은 저렴한 주택 가격, 부모 세대와의 동거 등으로 생활비 여유에 따른 소비 여력이 생기면서 소도시 경제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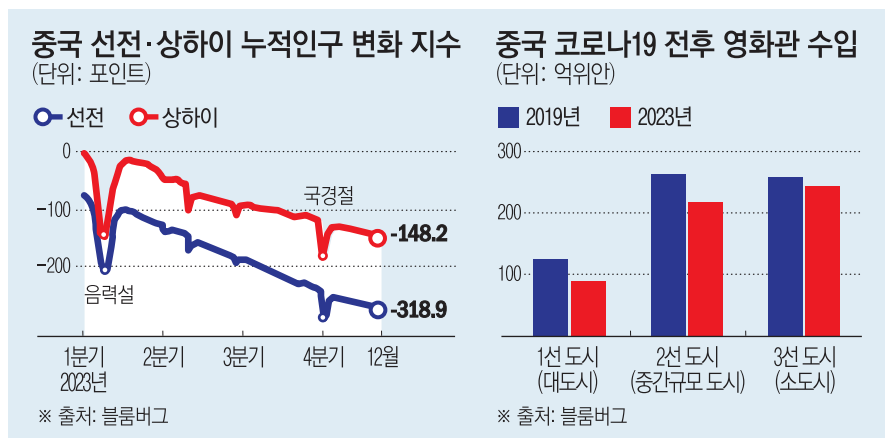
UBSD에비던스랩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소도시 생활자의 월별 지출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늘었다. 경제 불확실성에 소비가 침체하고 있는 대도시 상황과 정반대였다. 특히 소도시의 커피숍과 찻집 소비 빈도는 직전 조사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패스트푸드 업계 관계자는 “소도시 젊은이들은 생활비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아서 음식과 음료를 즐길 여유가 있다”며 “반면 대도시에서는 청년층이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다.

발 빠른 기업들은 이들 수요층을 정조준해 지방 도시에 속속 매장을 내고 있다.

KFC와 피자헛을 운영하는 암차이나홀딩스는 2026년까지 5000개 이상 매장을 추가할 계획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대도시 이외 지역이다. 도미노피자 중국 운영업체인 DPC Dash(대시)가 지난해 중국 본토에서 문을 연 180개 매장 중 약 80%는 베이징과 상하이가 아닌 곳에 자리를 잡았다.

중국 브랜드도 소도시로 돌아간 젊은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식음료 매장 데이터 플랫폼 칸아데이터에 따르면 버거 체인 푸저우타스텐과 버블티업체 믹쉐빙청 등 중국 메이저 패스트푸드업체가 운영하는 전체 매장의 절반이 소도시에 있다.

블룸버그는 “고향을 찾은 사람들은 세련된 쇼핑물, 거리를 가득 메운 전기차, 쇼핑객으로 붐비는 상점들을 발견하고 있다”며 “가처분 소득이 커진 소비자들은 KFC에서의 저녁 식사나 값비싼 스포츠의류 브랜드 롤루레몬 제품에 지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소도시의 최근 중국 전기차시장 확대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당국이 전기차 판매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도시 이외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6월 농촌 지역의 전기차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내놔다. 금융기관이 자동차 구매에 대한 신용 지원을 제공

하고 지방정부와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과 할인을 제공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소도시 지역이 중국 전체 전기차 판매량에서 차지했던 비율은 2021년 30.5%에서 지난해 32.0%, 올해 1~2월은 35.4%로 커지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美 아이비리그 점거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텐트를 치고 캠퍼스를 점거한 채로 있다. 컬럼비아대는 시위로 학내 긴장이 고조되고 보안 위험이 커지자 이날 대면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앞서 18일 컬럼비아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벌이던 재학생 100여 명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예일대, 하버드대 등 다른 미국 대학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노골적인 반유대주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최근 대학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비판했다.

뉴욕/AFP연합뉴스

코치의 베르사체 합병, 美서 제동

반독점당국 “가격경쟁 저해” 소송
“독과점 없는 패션업계서 이례적”

미국의 반독점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중저가 명품 브랜드 마이클코어스(Coach)와 코치의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FTC는 코치 브랜드를 소유한 태피스트리와 마이클코어스-베르사체 브랜드를 거느린 카프리의 인수합병(M&A)이 반독점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헨리 리우 FTC 경쟁국장은 성명을 내고 “태피스트리와 카프리의 합병은 가격경쟁, 할인, 디자인, 마케팅 등 양사가 경쟁 관계에 있을 때 미국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병 후 회사 직원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3만3000명에 달하게 되면서 두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혜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태피스트리는 유럽 명품 브랜드들이 대세인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고자 카프리를 85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FTC는 계약 체결 이후인 지난해 11월 양사에 합병 계약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일찌감치 합병 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패션 업계가 독과점 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리나 칸 FTC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줄곧 빅테크를 조준했는데, 이번에는 패션기업을 겨냥한 것도 이러한 평가에 힘을 싣는다. FTC와 달리 유럽과 일본 반독점 당국은 이달 초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승인했다.

태피스트리 측은 “이번 인수는 친(親) 경쟁적이고 친소비자적인 거래”라면서 “FTC가 시장과 소비자들의 쇼핑 방식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올해 합병을 성사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법정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美 싱크탱크 “러시아 경제 18개월 안에 붕괴”

전쟁·민생·경제 ‘정책 모순’ 빠져
올해 군사비 지출 사상 최대 전망
물가 안정 위해 금리 16%로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후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경제가 앞으로 1년 넘게 버티더라도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드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보고서에서 “서방 제재에도 역설적으로 러시아 경제가 안정을 찾았다”며 “그러나 힘들게 얻은 안정은 영원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늘어나는 불균형과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18개월 안에 붕괴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단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릴레마(3중 딜레마)’ 정책을 다루

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는 러시아 군대에 대한 자금 지원과 시민 생활 수준 유지, 경제 안정화 등을 의미한다. 재단은 이 세 가지를 함께 달성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안 징후는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올해 사상 최대 군사비를 지출할 계획이다.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 카네기 러시아-유라시아센터 연구원은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은 비생산적이고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확실할 수 없는 만큼 국가 경제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러시아 군사비가 정부 총지출의 16%에 달했는데, 이는 구소련 해체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생활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기준금리를 무려 연 16%까지 인상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져도 경제가 위축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잠식될 위험이 있다고 카네기 재단은 지적했다. 또 소득 감소는 대출금 상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부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프로코펜코 연구원은 “정치적 명령에 종속된 경제에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며 “이는 머지않아 러시아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해칠 것이고, 크렘린이 직면한 정치·경제적 역풍을 가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경고에도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제재를 잘 극복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비핵산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상호 무역에서 달러 사용을 거의 완전히 중단했다”며 “결제 대금의 90% 이상이 양국 통화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대영 기자 kodae0@

안드로이드처럼… 메타 ‘VR헤드셋 운영체제’ 개발

MS·레노버·아수스와 기기 개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22일(현지시간) 헤드셋 운영체제(OS)를 외부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추격하는 애플과 구글을 따돌리고 차세대 기술인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혼합현실(MR)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NBC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마이크 로소프트(MS)와 레노버, 아수스 등 외부 하드웨어 기업이 자사의 VR 헤드셋 ‘퀘스트’에 들어가는 OS인 ‘호라이즌’을 사용해 VR 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VR·MR 시장은 메타가 먼저 뛰어들 후 애플이 2월 비전프로 헤드셋을 출시

해 추격하고 있다. 비전프로는 비전 OS로 구동된다. 구글도 VR·MR 기기용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오랜 기간 애플과 구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자체 장치와 OS를 구축하기를 열망해 왔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메타는 차세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저커버그 CEO는 “컴퓨팅은 시대마다 개방형 모델과 폐쇄형 모델이 항상 존재한다”면서 “스마트폰의 경우 애플의 폐쇄형 모델이 기본적으로 승리했다. 이에 휴대폰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지만, 꼭 이런 식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진영 기자 mint@

HMM, 새 선박 4년 기다리느니... ‘해운사 인수’ 키 돌리나

‘몸집 키우기’ 묘수 찾나

HMM이 2030년까지 컨테이너선은 현재 84척에서 130척, 벌크선 등 기타 선박은 36척에서 110척으로 늘리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발표했다. 다만, 국내 조선사들이 호황이라 도크가 부족해 신규 건조를 진행하면서 국내 중형 해운사 인수를 병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MM은 2030년까지 컨테이너 선박량을 현재 92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150만TEU로, 벌크선 등 기타 선박은 630만중량톤수(DWT)에서 1228만DWT로 확대할 방침이다.

HMM은 기존에 2026년까지 컨테이너 선박량 120만TEU, 벌크선 55척 확보한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운동맹 재편 등 향후 해운업의 불확실성이 증

“2030년 선박량 150만TEU로”

조선사 도크 부족... 대기만 4년

중장기 목표 달성 위해 대안 모색

국내 중형 해운사 인수전략 부상

가하는 상황이라 더 큰 목표를 세워 주력 사업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HMM이신규 건조를맡겨야할 국내 조선사들이 호황기인 상황이라 빈 도크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대표적으로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의 경우 2027년 인도분까지는 대부분 계약을 마친 상황이라 HMM이 지금 당장 발주를 해도 최소 2028년부터 선박을 인도받을 수 있다.

현재 해운사들은 해운동맹 재편기를 맞아 경쟁적으로 몸집을 불리고 있어HMM



이 4년 간 마냥 신규 선박만 기다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업계에서는HMM이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SK해운이나 에이치라인해운 등 국내 해운사 인수에 나설 것이란 예상 이 나오고 있다.

SK해운은벌크선을비롯해액화석유가스(LPG)선, 원유운반선, 액화천연가스(LNG)선, 가스선 등 다양한 선박을 총 60척 가량 보유 중이다. 에이치라인해운은 48척을 운용 중이며 이중 벌크선이 31척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HMM은지난해현대LNG해운인수를 시도했지만, 인수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로 계약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프라이빗에쿼티와 IMM인베스트먼트로 구성된 IMM컨소시엄은 현대LNG해운의 가격을 최소 5000억 원 이상으로 책정했는데, HMM은 3000억 원대를 제시했었다.

당시에도HMM이현대LNG해운을인수하려는 주된 이유는 약 85%에 달하는 컨테이너선 사업 부문 비중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HMM이국내 해운사를 인수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형 해운사들이 보유한 선박들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2050 탄소 중립 중장기 목표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도 “그럼에도 향후 15년 정도는 유지·보수를 통해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MM이 해당 선박들은 운용하면서 시간을 벌고, 그와 함께 친환경 선박을 발주해 장기적 관점에서 노후 선박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선박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MM 관계자는 “아직은 선박량을 늘릴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이지만, 신규 건조뿐 아닌 용선 등 다른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삼성,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D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으로 李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 앞장 2심 재판서도 진두지휘 할 듯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법무실 송무팀장을 맡고있던 엄대현(사진) 부사장이 최근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은 보통 12월에 사장단 등 정기 인사를 하는데, 이처럼 ‘원포인트’ 사장 인사를 실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엄대현 부사장은 최근 승진해 DX부문 법무실 담당 사장을 맡게 됐다. 2013년 연말 인사에서 부사장에 오른 후 10년 만에 사장 승진이다.

검찰 출신인 엄대현 사장은 2000년 삼성전자 법무담당 임원(상무)으로 영입돼 미래전략실(미전실) 법무실 등을 거쳤다. 2008년 5월 전무, 2013년 12월 부사장으로 진급했으며, 이번에 사장으로 승진해 김수목 법무실장(사장)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엄 사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의 특검 수사 대응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2017년 2월 17일 이 회장이 끝내 구속을 피하지 못하자 미전실 해체와 함께 회사를 떠났다가 2020년 복귀했다.

삼성전자에서 ‘원포인트’ 인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드문 일이다. 최근 사례로는 하만인수 등 대형 인수합병(M&A)를 주도한 안중현 삼성전자 사장이 있다. 안 사장은 미전실과 사업지원TF 등 핵심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2022년 4월 원포인트 인사로 사장에 승진했다.



재계에선 엄대현 사장의 이번 승진에 대해 이재용 회장이 계열사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관련 1심재

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지난 2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엄대현 사장은 2020년 삼성전자에 복귀해 이재용 회장의 재판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수사 또는 재판에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됐다면 법무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기 마련”이라며 “물론 직접 소송을 담당할 로펌이 상당한 기여를 했겠지만, 그로움을 연결하고 변호인단을 꾸린 법무팀에 승진 인사가 이어지는 것이 일관적”이라고 말했다.

엄 사장은 앞으로 김수목 실장과 함께 이재용 회장의 2심 재판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를 진행한다.

송영록 기자 syr@

이수진 기자 abc123@

LG전자 ‘항균 기능성 소재’로 B2B 신사업 속도

자체 제작 유리 파우더 ‘퓨로텍’

글로벌 시장서 700% 성장 기대

LG전자가 신사업 및 글로벌 B2B 성장 동력인 항균 기능성 소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LG전자는 앞서 독자적인 유리 조성 설계 기술과 가전제품 실사용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퓨로텍’(PuroTec™)을 개발했다. 퓨로텍은 Pure(오염되지 않은·깨끗한), Protect(보호하다),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다. 제품을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은 LG전자의 항균 기능성 소재다.

유리 파우더 형태인 퓨로텍은 플라스틱이나 페인트, 고무 등 소재를 만들 때 첨가하면 미생물에 의한 악취, 오염, 변색 등을 막는 항균 및 항곰팡이 효과를 낸다. 유리



LG전자가 개발한 기능성 유리 파우더. 사진제공 LG

파우더란 유리를 분쇄해 얻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

항균 기능성 소재는 코로나 이후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의류, 건축자재, 포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다.

LG전자는 작년보다 국내에서 퓨로텍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는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주요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 매출이 작년 대비 700%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1996년부터 유리 파우더 연

동남아 뚫은 TYM, 필리핀에 트랙터 900대 공급

현지 정부 입찰 프로젝트 수주 성공

TYM이 수출 불모지였던 동남아 시장에서 대규모 트랙터 공급 계약을 맺고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TYM은 필리핀 정부에서 트랙터 보급을 위해 추진한 입찰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해 총 900대 규모의 트랙터를 수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현지에서 운용하기에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춘 트랙터를 TYM의 ‘5825R’로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현지 농민들에게 트랙터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TYM은 일본 농기계 업체가 30년 이상과 접하고 있던 동남아 시장에 국산 트랙터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TYM은 이번 트랙터 공급을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추가적인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M은 필리핀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출 전략을 수립했다. 자체적인 영업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필리핀 ‘Fit Corea’사를 공식 파트너로 지정하고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또한, 필리핀 현지 농민들이 운용하기에 가장 적합



TYM은 필리핀 정부에서 트랙터 보급을 위해 추진한 입찰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해 총 900대 규모의 트랙터를 수출했다. 사진제공 TYM

한 맞춤형 전략모델 ‘5825R’을 개발해 적시에 투입한 것이 이번 성과로 연결됐다. TYM은 단순 트랙터 수출에 그치지 않고 필리핀에서 농업이 빠르게 현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현지에 대규모 로드쇼와 트랙터 체험 행사를 추진하고, 필리핀 최대 농기계 전시회인 ‘필리핀 농업박람회(AGRILINK)’에 참가하는 등 현지 농민과의 교류 및 소통 확대에 나선다. 트랙터 외에 이앙기 등 제품군도 확대해 선보일 계획이다. 필리핀을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TYM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전파해 시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신시장 개척을 가속한다는 목표다. 조남호 기자 spdran@

교촌, 판교 본사로 이전 ‘진심경영’ 새 비전 선포

판교시대를 새롭게 여는 교촌그룹이 새 비전을 선포하고 100년 기업을 향한 대장정의 발을 내디뎠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교촌)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신사옥에서 ‘진심경영 선포식’을 열고,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1991년 3월 13일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교촌통닭’이란 이름으로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교촌은 올해 창립 33주년을 맞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신사옥으로 본사를 옮겼다. 교촌의 본사 사옥 이전은 2004년 경기도 오산에 자리를 잡은 후 20년 만이다.

교촌은 사옥 이전을 기념해 ‘진심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철학을 담은 새 비전 ‘진심경영’을 공개했다. 진심경영에는 △정직과 정성 △도전과 혁신 △상생과 나눔을 공유 가치로 삼아 100년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권원강 교촌 회장은 “진심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기업 철학은 100년 기업을 향한 교촌 철학의 진수”라며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식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SK CEO들 “전사적 리밸런싱… 밸류업 속도 낸다”

‘4월 수펙스추구협의회’ 개최

SK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그룹 내 각 사업을 점검 및 최적화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일시적 수요 둔화 등에 직면한 전기차 배터리와 그린(Green) 사업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SK그룹은 23일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4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장용호 SK㈜ CEO, 박상규 SK이노베이션 CEO 등 주요 계열사 CEO 20여 명이 참석해 이같은 방향성에 공감하고 실행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CEO들은 각 사의 최근 실적을 점검하고, 올 초부터 진행 중인 그룹 내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향성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CEO들은 먼저 그동안 일부 계열사의

주요계열사 수장 20여명 참석

사업 최적화 방향성 열띤 토론

경영환경 변화 대응 부족 공감

계열사별 밸류체인 최적화 추진

경쟁력 강화·기업가치 제고 다짐

투자 및 사업과 관련해 거시경제 변수, 지정학 리스크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정교한 예측과 대응 등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최창원 의장은 “환경변화를 미리 읽고 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일상적 경영활동으로 당연한 일인데 미리 잘 대비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CEO들이 먼저 겸손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미래 성장에 필요한 과제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K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사업군과 성장 잠재력이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장용호 SK㈜ 사장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충분한 포트폴리오, 탄탄한 기술·사업 역량과 자원 등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면서 “더 큰 도약을 위해 자신감을 갖고 기민하게 전열을 재정비하자”고 당부했다.

CEO들도 각 사 경영 여건에 맞게 최대한 밸류체인 최적화 등 변화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SK 주요 계열사들은 연초부터 다양한 테스크포스(TF)를 발족해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조정 및 최적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다”고 밝혔다.

다른 CEO들도 반도체·인공지능(AI)·그린사업·바이오 등 사업 영역별 기술 혁신과 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메모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시대를 선도하는 ‘토탈 AI 메모리 프로바이더(Total AI Memory Provider)’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국내외 투자로 미래 사업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최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컴퍼니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최창원 의장은 “선명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치열하게 실행하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주주,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 기대에 부응하는 더 단단한 SK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포스코, 차세대 이차전지 실리콘음극재 공장 준공

연산 550톤 규모 하공정 설비

2030년 年2.5만톤 생산 목표

포스코그룹이 실리콘음극재 공장을 준공하고 차세대 이차전지소재사업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 19일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연산 550톤(t) 규모 실리콘음극재(SiOx) 공장을 준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한 설비는 전체 생산라인 중 하공정에 해당한다.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 고객사의 실리콘음극재 공급 요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조기 가동체제를 갖췄다.

실리콘음극재는 현재 리튬이온전지에 대부분 적용되는 흑연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를 4배가량 높일 수 있어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 및 충전시간 단축이 가능한 차세대 음극재다. 연산 550톤은 전기차 27만5000대를 생산할 수 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실리콘음극재 시장 규모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이 19일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실리콘음극재 공장을 준공했다. 사진제공 포스코실리콘솔루션

는 현재 약 1만 톤 수준에서 2035년 약 28만500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그룹은 음극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 실리콘음극재 기술 스타트업인 테라테크노스를 인수했다. 이후 포스코실리콘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지난해 4월 실리콘음극재 공장을 착공했다.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 9월 상공정을

포함해 종합 준공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연산 2만5000t의 실리콘음극재 생산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실리콘탄소복합체(SiC) 음극재도 생산할 계획이다. 이차전지소재 원료 사업과 양·음극재 사업은 물론, 실리콘음극재, 리튬메탈음극재 등 차세대 이차전지소재 경쟁력을 키워 이차전지소재 풀밸류체인(Full Value Chain)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toto@

삼성전자, 美건설사 클레이턴에 생활가전 공급

클레이턴 공급주택에 키친 패키지

삼성전자가 미국 유력 건설사인 ‘클레이턴 홈 빌딩 그룹’과 생활가전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클레이턴사가 신규 공급하는 주택에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전자레인지 등으로 구성된 키친 패키지를 공급한다. 입주자가 세탁기와 건조기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키친 패키지는 와이파이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고효율 에너지 제품에 부여하는 ‘에너지 스타’ 인증도 획득했다.

삼성전자의 통합 연결 플랫폼인 ‘스마트싱스’를 통해 기기 간 연결과 제어를 손쉽게 할 수 있고, 전등이나 스위치 같은 제

3의 기기까지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집 전체의 전력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절약모드를 활용해 전력을 줄일 수 있다.

콜트 데이비스 클레이턴 홈 빌딩 그룹 최고운영책임자는 “클레이턴은 혁신과 지속 가능성, 세계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왔다”며 “삼성사의 뛰어난 제품 성능과 고객 서비스, 에너지 고효율을 높이 평가해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최익수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스마트싱스 기반의 스마트한 연결 경험과 고효율 에너지 성능을 인정받아 삼성가전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북미 지역의 주요 건설사들과의 협업을 확대해 기업간거래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위축됐던 디스플레이 시장… 올해는 氣편다

지난해 경기 둔화에 3.9% 축소

수요교체·각종 행사에 올 10%↑

지난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이 고금리 기조 등에 따른 수요 위축 영향으로 4% 가까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교체 수요 주기 도래와 글로벌 스포츠 행사 등으로 지난해 대비 10% 이상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23일 발표한 ‘디스플레이산업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수요위축 영향으로 2022년 대비 3.9% 감소한 117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기간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 매출 실적은 전년 대비 13.4% 감소한 389억 달러로 집계됐다.

한국 기업의 액정표시장치(LCD) 사업 축소, 중국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 진입 확대와 그에 따른 디스플레이 시장 경쟁 심화가 한국 업계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중국 내 애국소비 ‘귀차오’(國潮) 열풍, 중국의 자국산 부품 사용 장려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OLED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의 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추격도 빨라지고 있다. 작년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74.2%, 중국은 25.1%로 양국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형 OLED 시장에서는 한국이 96.1%로 압도적 점유율을 보였다.

올해 디스플레이 시장은 세트 교체 수요 주기 도래와 태블릿 등 IT 제품의 OLED 전환, 파리올림픽을 비롯한 글로벌 스포츠 행사 개최 등에 따른 전방 수요 증가에 힘입어 작년 대비 13% 증가한 1333억 달러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은 중소형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위에 안주하지 않고 중대형·대형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시장을 리드 중”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abc123@

한화시스템, 3000톤급 잠수함 전술훈련장 국산화

지상에 해양·수중 전술환경 구현

한화시스템이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전술훈련장 국산화에 성공했다. 순수 우리 기술만으로 국내에 잠수함 전술훈련장을 개발·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시스템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KSS-III Batch-I)의 모의 훈련을 위한 전술훈련장 구축 작업을 지난달 마치고 본격 운용에 나섰다 23일 밝혔다.

이번 전술훈련장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항해·전술 훈련이 지상에서도 가능하도록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훈련실 △통제실 △강평실 등 여러 공간으로 나뉘 구성했으며 잠수함 내부와 한반도 주변



도산안창호급 전술훈련장 개장식에서 박도현(왼쪽 세 번째부터) 한화시스템 지휘통제사업부 사업대표, 강정호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시스템

해양·수중·음탐 환경을 그대로 재현했다.

훈련실은 실제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되는 장비들이 전투지휘실과 동일하게 구성

·배치해 항해·전술 훈련의 실감도를 높였다. 또한 전장 상황을 100% 모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동욱 기자 toto@

가족의 소중함을 지키는 일

신한이 모든 순간 아름답게 동행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재생PC기부, 디지털금융교육
손주와 가르쳐주는 것처럼 쉽네~



한부모 취업 지원

엄마 사랑해! 우리 가족 화이팅!



신한 아름인도서관

언니랑 책 읽으니까 진짜 행복해~



위기가정 재기지원

여보~ 희망이 보여요!

아름다운 동행

신한금융그룹은 사회공헌 브랜드 '아름다운 동행'으로 아동부터 청년, 성인, 시니어까지 다양한 지원을 펼쳐 나눔으로써 대한민국 모든 가정의 행복을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SKT 사장〉

‘AI 컴퍼니’ 방향타 잡은 유영상… B2C 수익화 성큼

유영상〈사진〉

SK텔레콤 사장이 만든 ‘인공지능(AI) 파라미터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동 통신 3사 가운데 AI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수익화에 가장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전화서도 ‘에이닷 통역콜’ 이용료는 국내요금과 동일하게 출시 4개월 만에 400만 가입자

포토프로필 등 구독형 상품 검토 AI 서비스 더 고도화할 계획 업계, 에이닷 수익화 성패 촉각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이는 에이닷 서비스의 상용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AI 파라미터 전략의 상충부인 ‘AI 서비스’를 수익화하기 위해서는 에이닷의 유료화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에이닷 내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돼 이용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같은 기능 고도화에 힘입어 에이닷의 가입자는 현재 4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SKT는 에이닷의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다. 김홍훈 SKT AI 서비스 총괄 부사



SK텔레콤이 국제전화에서도 인공지능(AI)개인비서 ‘에이닷’의 통역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제공 SK텔레콤

장은 CES 2024에서 “사용자만 많으면 언젠가 돈을 벌겠다”와 같은 순진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에이닷은 사업 성과를 목표로 두고 있다”면서 “(에이닷은) 고객들에 번들링하거나 구독하는 방식으로 과금 및 유료화 계획이 가능할 것 같고, AI 개인 비서를 통한 중개 수수료 등도 모델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수면 관리, 포토 프로필과 같은 기

능들을 묶어 구독형 상품 형태의 수익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 내 일부 사업자의 경우 포토 프로필과 같은 AI 콘텐츠에 대해서 월정액 또는 건당 사용료 과금 방식으로 수익률을 내고 있기에 에이닷에서도 유사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거란 전망이다.

다만 에이닷의 유료화 시점은 미정이다. SKT 관계자는 “유료화 시점은 서비

스 상황, 소비자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에이닷의 근간이 되는 에이닷 전화 사용 경험이 에이닷의 다양한 콘텐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천 등 AI 기능 자체를 더 고도화할 방침이다.

AI의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서비스는 자사 AI 기술력을 시장에 알리고, 소비자와 기업 간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AI 서비스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이를 수익화하기란 쉽지 않다. 소비자 생활에 밀접한 만큼 윤리적 문제의 위험성도 피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SKT가 AI 서비스 B2C 수익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한다. SKT의 AI 기술력은 글로벌 주요 통신사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의 ‘테크기업으로 전환하는 통신사 전략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통신사 12곳 중 SKT가 AI, 고객용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연구개발(R&D), 테크기업을 향한 비전 등 4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에스원 대표〉

남궁범 “시니어 세대, 디지털 장벽 허물어… 불편함 없는 제2인생을”

에스원, 종로 탑골미술관에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개소

“시니어 세대가 생활 속 불편함 없이 제2의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하겠다.”

남궁범 에스원 대표가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 센터’ 개소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스원은 23일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서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 센터를 열었다. 이날 열린 행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삼성 그룹의 사회적 책임(CSR) 사업의 하나로 에스원이 주관한다.

남궁 대표는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시니어 세대의 ‘생활 속 불편 해소’와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수월히 활용해 노인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다.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65세 이

식당·주민센터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실습 공간 마련 5월 14일까지 3주간 운영 취업연계형 교육도 함께 진행 인천·경기센터 순차개소 계획

상의 취약계층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다.

디지털 체험센터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경험할 수 있다. △음식점·카페 △병원·약국 △주민센터 등 장소별 키오스크가 5대 설치됐다. ‘무인민원발급 창구’라 쓰인 키오스크는 실제 주민센터에서의 행정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을 구현했다. 서류 종류를 선택하고 터치패드 속 지문 인식기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터치한다. 비치된 모형 카드로 결제하면 서류와 영수증이 나오는 방식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미술관에서 열린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체험센터 개소식에서 남궁범(맨 왼쪽) 에스원 대표이사, 박상연(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조배숙(다섯 번째) 국민의미래 당선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다.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는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취업연계형 교육도 진행한다. 노인 채용 예정인 기업·기관을 찾고 직무 역량에 맞춰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이날 개소식에도 교육 대상

인 시니어 수십 명이 참석했다. 심화 교육에 참여 중인 류근욱 씨(70)는 “디지털 직무로 교육도 받고 시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새로운 도전 차원에서 참여했다”며 “교육 수료 후 최종 면접을 통해 취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첫 취업 기관으로는 서울교통공사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3월부터 2주간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노인 40명 중 30명이 채용 확정돼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에스원은 연내 기업 및 기관 2~3곳을 추가로 발굴해 취업 연계형으로 100명을 더 교육하는 게 목표다.

또한, 에스원은 지역 노인기관 소속 생활 지원사 150명을 디지털 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한다. 이들은 노인 가구를 방문해 1대1로 스마트폰 사용법, 모바일 쇼핑·금융거래·예약 방법은 물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디지털 기

반 범죄 피해 예방법도 교육한다. 에스원은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도에 체험센터를 순차 개소할 계획이다. 서울 디지털 체험센터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이은주 기자 letswin@

“팹리스 스타트업 육성”… 중기부, 파운드리 4개사와 상생협력

삼성전자·SK하이닉스 이어 DB하이텍·SK파운드리 참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SK파운드리 등 국내 4개 파운드리와 팹리스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판교창업존에서 창업정책관 주재로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4개 파운드리사,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회는 우리나라 팹리스 산업과

시스템반도체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팹리스 업계와 파운드리, 중기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이다. 중소 팹리스의 애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상생 협력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발족해 올해 6회를 맞았다.

이번 상생협의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최기창 교수의 ‘시스템반도체 산업 동향 및 주요 이슈’ 발표를 시작으로, ‘2024 팹리스 챌린지’의 세부 추진계획, 팹리스 협회에서 제안한 팹리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성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이날 2024년 팹리스 챌린지를 공고했다. 팹리스 챌린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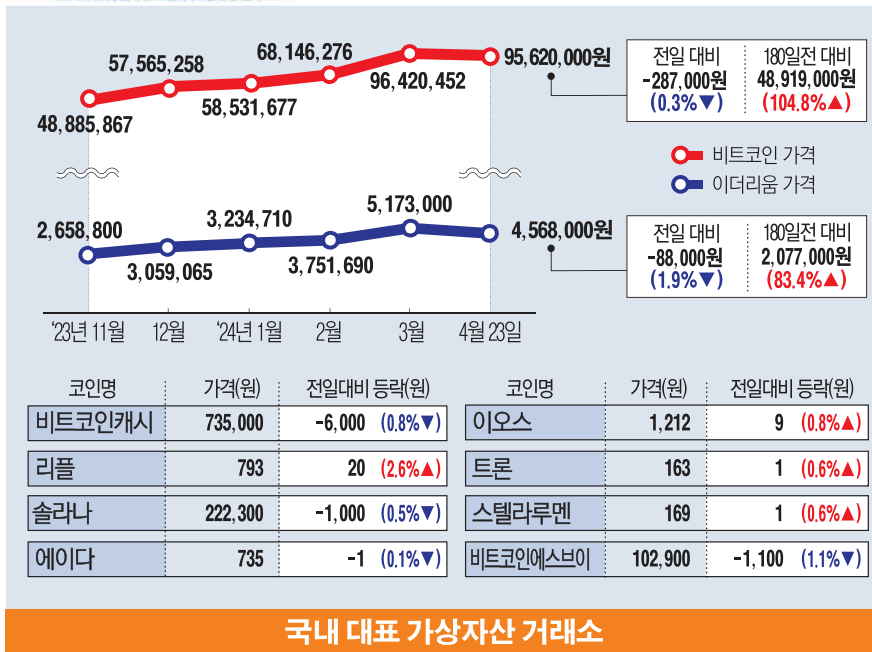
국내 파운드리와 공동으로 유망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MPW(Multi-Project Wafer) 소모 비용과 신제품 제작 기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됐으며, 현재까지 10개사가 선정돼 지원을 받았다.

이번 챌린지는 삼성전자·파운드리만 참여하던 이전과 달리, 팹리스산업협회가 지난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국내 모든 파운드리의 챌린지 참여 요청을 DB하이텍과 SK파운드리가 받아들여면서 처음으로 국내 모든 파운드리가 참여하는 챌린지로 확대됐다.

조남호 기자 spdran@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4년 4월 23일 17:00, KST)



반백년 情 나눈 초코파이… 세계인 입맛 사르르 녹였네

장수 K푸드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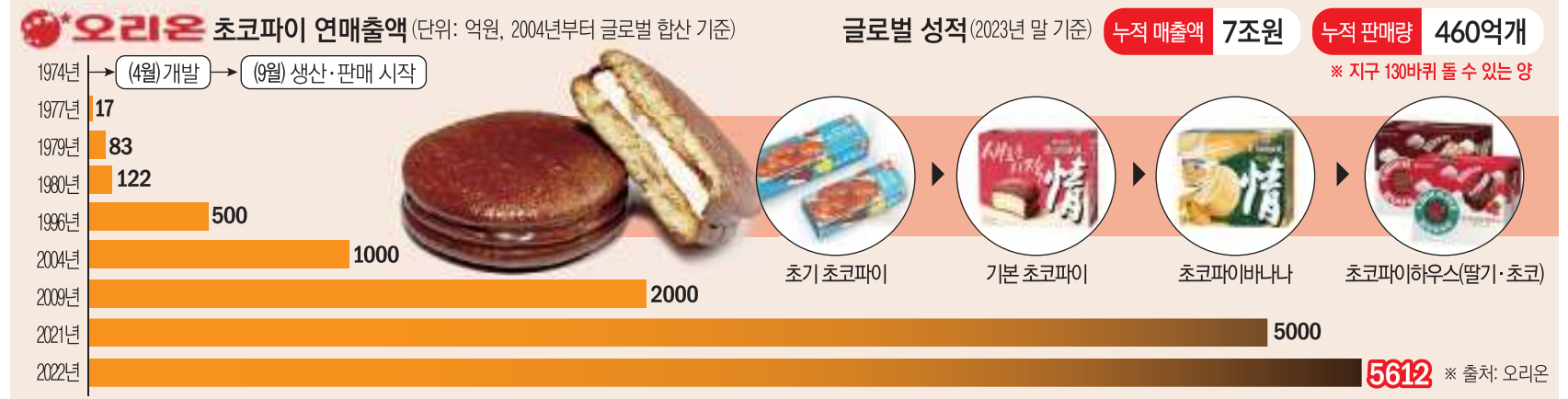
오리온 ‘초코파이’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로 힘입어 한국 라면과 스낵 등 K푸드의 수출도 매년 늘고 있다. 업력이 더해져 올해로 탄생 40주년, 50주년을 맞은 식품은 그 자체로 ‘장수 브랜드’가 됐다.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MZ세대까지 남녀노소 입맛을 사로잡은 장수 제품의 개발 비화와 역사 등 숨은 이야기를 다뤄본다.

〈편집자주〉

오리온 ‘초코파이 정(情초코파이)’이 이달 탄생 50주년을 맞았다. 초코파이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갔고 현재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세계 60여 개국에서 판매 중이다. 반세기만에 한국인의 대표 간식 초코파이는 ‘세계인의 간식’이 된 것이다.

◇지구 130바퀴 돈 판매량= 23일 오리온에 따르면 초코파이는 약 2년여 간 연구 끝에 1974년 4월 개발됐다. 비스킷과 초콜릿, 마시멜로를 혼합한 초코파이는 이전 과자들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주목받았다. 오리온은 그해 9월부터 본격 생산, 판매에 돌입했다. 다만 출시 초기엔 대부분 공정이 수작업이라, 월 생산 규모는 2억~3억 원 수준이었다. 이후 초코파이가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제품”으로 인기가 치솟자, 연 매출액은 1977년 17억 원, 1978년 26억 원, 1979년 83억 원, 1980년 122억 원으로 급증했다. 1996년 12월엔 월 매출액 53억 원을 돌파,



2년여 간 연구 끝에 1974년 4월 첫 출시
부드럽고 촉촉한 맛 남녀노소 사랑받아
제과업체 첫 월 매출 50억원 신기록 달성
60개국 맞춤 개발… 해마다 수출 ‘쑥쑥’

국내 제과업계 최초로 단일제품 월 매출 50억 원 돌파 신기록을 세웠다. 현재 초코파이의 월 매출액은 글로벌 합산 50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누적 매출은 7조 원을 넘겼고, 국내 누적 매출은 2조3000억 원에 달한다. 판매량만 따지면 누적 460억 개를 넘는데, 이는 지구 130바퀴를 돌 수 있는 양이다.

◇마시멜로·비스킷·초콜릿 황금배합 촉촉한 맛의 비결= 오리온 초코파이의 수분 함량이 높은 마시멜

로와 비스킷, 초콜릿을 배합해 만든다. 특히 마시멜로의 수분은 숙성 과정에서 비스킷까지 적셔 부드러운 식감과 촉촉함, 풍미를 유지하는 일등공신이다. 그런데 마시멜로의 수분은 미생물에 의한 오염과 변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오리온은 한때 큰 난관에 봉착했다. 1995년 중국에서 “제품에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것. 그해 여름 중국 남부지역 장마가 이어져 고온다습한 현지 기후를 극복 못한 탓이었다. 오리온은 당시 현지 유통된 제품 전량 10만 개를 모두 수거해 불 태웠다. 또 당시 사용한 투명포장지를 생산원가 상승에도 전면 교체했다. 투명포장지는 열과 공기가 비교적 잘 투과해 변질이 쉽기 때문이다. 오리온 초코파이 개발팀은 이 사건을 계기로 1년여 간 신제품 출시 대신 연구에 몰두, 최적의 수분 함량(13%)을 찾아냈다. 이후 러시아와 중동 등 한국보다 춥거나 더운 지역에 수출해도

초코파이의 6개월 넘게 변함없는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세계로 간 초코파이… 각국 정서·기호 맞춰 무한변신= 초코파이의 한해 글로벌 판매량은 35억 개에 달한다. 오리온은 국가별 정서에 맞춰 각기 다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한국인처럼 정(情)을 중시하는 베트남에선 정을 뜻하는 Tinh을, 인간관계에서 인(仁)을 중시하는 중국에선 仁을 포장지에 넣었다. 러시아에선 차와 케이크를 함께 먹는 소비자 취향을 반영해 차와 어울리는 라즈베리, 체리, 블랙커런트, 망고 등을 넣은 초코파이를 선보이고 있다. 러시아법인은 오리온 해외법인 중 가장 많은 14개 종류의 초코파이를 생산 중이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는 돼지 대신 소고기 활용 젤라틴을 사용해 할랄 인증도 받았다.

김지영 기자 kijy42@

고물가 이색소비

가격으로 승부… 알뜰족 몰리는 ‘마감 할인’

롯데·현대百貨 등 오후 6시 이후 매출 증가
최대 50% 할인… “고물가 장보기 해법”

고물가에도 소비자들이 폐점 전 발빠르게 백화점으로 향하고 있다. 고품질의 식료품을 최대 반값 판매하는 ‘식품관 마감할인매대’를 향해서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오후 6시~폐점시간 기준 롯데백화점 식품관의 델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신장했다. 델리는 일반적으로 분식, 만두 등을 말한다. 같은 기간 롯데백화점 식품관의 반찬 매출은 15%, 청과 매출은 10% 늘었다. 다른 백화점도 이런 현상이 뚜렷하다.

신세계백화점 식품관의 올해 1분기 오후 6시~폐점시간 기준 델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식품관 전체 델리 매출 신장률이 10%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현대백화점 식품관도 같은 기간 전체 식품 매

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했다. 델리와 반찬 매출은 각각 35.7%, 31.1% 늘었다.

국내 주요 백화점 식품관의 퇴근 시간 이후 식품 매출이 증가한 건 ‘마감할인’ 때문이다. 백화점 식품관은 오후 6시부터 폐점 시간까지 분식, 과일, 반찬 등 품목에 따라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박재인(가명) 씨는 “한 팩에 6000원 반찬을 마감 시간에 와 3팩에 1만 원에 샀다”면서 “퇴근 후 시간이 맞으면 (식품관을) 들린다. 외식 물가가 비싸져 찾은 장보기 해법”이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품목별 물가 상승률은 외식 3.4%, 채소 10.9%, 과일 40.3%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1%)을 웃돌았다. 한국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김밥 평균 가격은 3323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올랐고, 짜장면 값은 전년 동기 대비 4% 오른 7069원이었다.

유승호 기자 peter@

고품질로 승부… 주부 홀리는 ‘가정간편식’

특급호텔 출시 프리미엄 제품 인기
“비싼만큼 제값” 가심비 고객 공략

고물가 시대에도 국내 주요 특급호텔이 선보인 프리미엄 김치 등 HMR(가정간편식)이 꾸준히 인기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외식물가 부담에도 주문만 하면 가정에서도 호텔 수준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 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가 높은 이유에서다.

23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 조선호텔앤리조트는 2016년 신세계라이브쇼핑과 협업해 포기김치 판매를 시작, 매년 두자릿수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조선호텔 김치 매출은 전년 대비 42% 상승했다. 조선호텔의 간편식은 김치뿐만이 아니다. 육개장이 누적 80만 개 이상 판매됐고 갈비탕과 LA갈비 등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1분기 조선호텔 HMR 매출도 1년 전보다 83% 뛰었다.

위커히호텔도 그간의 노하우를 포장김치 제조

와 판매에 접목시켜 꾸준히 소비자 선택을 받고 있다. 위커히호텔은 현재 프리미엄 브랜드 ‘수펙스’와 세컨드 브랜드 ‘위커히호텔 김치’ 2종을 판매하는 한편 월 2회 배송되는 김치 구독서비스로 판로를 넓히고 있다.

롯데호텔도 작년 8월 포장김치 시장에 뛰어 들었다. 후발주자지만 ‘롯데호텔 김치’도 소비자 호응이 커, 론칭 6개월이 채 안돼 누적 판매량이 약 2만 건을 넘겼다. 롯데호텔은 배추김치와 갓파김치, 총각김치까지 라인업을 확장했다.

특급호텔 HMR 제품의 인기는 최근 고물가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소비자들이 다소 비싼 가격에도 호텔 셰프가 만든 고품질과 수준 높은 맛을 즐기려 하기 때문이다. 호텔업계 한 관계자는 “고물가에도 특급호텔 HMR에 대해 ‘비싼만큼 제값을 할 것’이라 여긴다”며 “이런 요구에 부응해 포장김치나 밀키트 라인업을 프리미엄급으로 확장, 판매 채널도 다양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제주개발공사 “페플라스틱으로 티셔츠 제작… ESG 실천해요”

〈환경·사회·지배구조〉

F&F·효성티앤씨 협업… 친환경 연구 총력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는 F&F, 효성티앤씨, 카카오 등과 협력해 페플라스틱활용한 자원순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 패션 기업 F&F, 화학 섬유 기업 효성티앤씨와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바다에서 총 2톤(t) 분량의 페플라스틱을 수거했다. 이를 효성티앤씨가 리사이클 원단으로 제작하고, F&F의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브랜드를 통해 ‘제주 리사이클 에디션’ 반팔 티셔츠 4종을 출시했다. 카카오와는 ‘제주 해양 페플라스틱 자원순환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 해양 페플라스틱 수거·업사이클 제

품 제작 △판매 수익으로 취약계층 지원 △해안정화 활동·자원순환 교육 등 ESG 실천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에는 카카오의 임팩트 커머스와 ‘새가버치’ 캠페인을 진행, 제주바다에 버려졌던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준식이 패딩’을 제작했다.

친환경 용기 연구 개발에도 꾸준히 힘쓰고 있다. 2021년 무라벨·무색검·무색병 3무(無) 시스템을 적용한 ‘제주삼다수 그린’을 선보였으며, 지난해 제주삼다수 무라벨 매출은 전체의 40%를 넘어섰다. 제주삼다수 그린 출시 이후 2년 만의 성과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이라는 공사의 비전에 맞춰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친환경 기업으로서 성장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jy42@



롯데월드 “더 화려해진 야간 퍼레이드 만나보세요”

국내 대표 테마파크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개원 35주년을 맞아 신규 야간 퍼레이드 ‘월드 오브 라이트(WORLD OF LIGHT)’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26일부터 매일 오후 8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어드벤처 1층 퍼레이드코스에서 펼쳐진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개원 35주년을 맞아 신규 야간 퍼레이드 ‘월드 오브 라이트(WORLD OF LIGHT)’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26일부터 매일 오후 8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어드벤처 1층 퍼레이드코스에서 펼쳐진다.

여전채 만기 상반기에만 6兆 돌아온다… 카드사 ‘전전공공’

자금조달 채널 다변화 모색

카드사들이 발행했던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만기가 올 상반기에만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자비용이 급증해 이익이 크게 줄었던 카드사들은 자금조달 환경이 더 악화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여전채는 5조645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금리 인상이 시작된 2021년 이전 발행된 여전채 규모는 3조7800억 원으로 전체 만기 채권 규모의 67%를 차지한다.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금융사들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차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70%가량을 여전채를 통해 조달한다. 문제는 금리 인하기에 쉽게 끌려다 쓴 돈이 값을 시점에 이자가 크게 올랐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2021년 이전 발행한 여전채 평균 금리는 1.88%. 현재 여전채 1년 물의 금리(3.8%)보다 2배 이상 상승한 수

2021년 이전 발행 3.8조… 67%

1년물보다 금리 2배이상 상승

작년 이자비용 늘어 이익 ‘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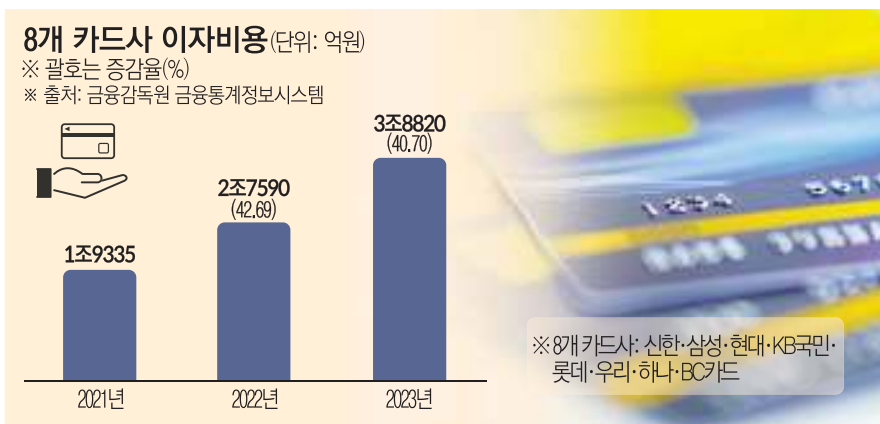
전전성 악화에 조달비용 급증

신종자본증권·ESG채권 등 발행

차다.

이자비용이 상승하는 점도 카드사들의 고민이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의 이자비용 합계는 전년 대비(2조7590억 원) 40.70% 증가한 3조882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며 카드사들의 조달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자본 건전성이 악화된 카드사들로서는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기가 버거운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8개 카드사의 부실여신 잔액은 전년 대비



37%가량 늘어난 1조9000억 원에 달했다. 연체율은 9년 만에 최고치인 1.63%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1.23%로 전년 대비 0.44%포인트(p) 오른 상태다.

카드사들이 여전채보다 자금조달 채널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배경이다. 실제 카드사들은 신종자본증권을 비롯해 자산유동화증권(ABS),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돼 건전성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공모 방식을 통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발행 예정 금액은 1500억 원.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500억 원까지 증액 발행 계획을 세웠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 3200억 원 규모의 해외 ABS를 발행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해 6월 3200억 원 규모의 해외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 바 있다.

지난해 25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한 현대카드도 지난해 35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고 하나카드는 올해 1분기 17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내놨다. 우리카드도 지난해(1조1771억 원)에 이어 올해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낮은 ESG채권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최근 금융당국의 상생금융기조에서 ESG 정책을 강화하며 투자자 수요를 모집하는 등 회사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낮아지며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방식이 다변화될 필요가 있다”며 “신종자본증권과 ESG채권 등 장기성 자금조달을 통해 조달비용 상승을 방지하고 자본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들이 그동안 여전채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며 만기가 도래하면 차환비용이 증가했는데 신종자본증권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원 기자 jsw@

속도 못내는 ‘홍콩ELS 배상’… 답답한 은행街

판매규모 큰 국민銀 자율배상 돌입

농협銀 이르면 이달말 방안 마련

“소송 불사” 투자자 거부 움직임 확산

홍콩 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해 은행권이 자율배상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지만 높은 배상 비율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쉽지 않은 탓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자율배상안 철회’까지 요구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전일부터 H지수 ELS 자율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네번째다. 워낙 판매 규모가 커 절차가 늦어졌다. 국민은행의 1~7월 만기 도래 계좌는 무려 8만여 개에 달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상품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해지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순차적 배상에 들어갔지만 건수도 많고 금액도 큰 만큼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라

고 말했다.

아직 배상을 위한 자율조정협의회 구성도 마치지 못한 은행도 있다. 각 은행들은 10~20명 가량 참여한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개별 배상안을 마련 중이다. 협의회가 개별 건에 대해 심의·의결해 배상안을 마련하고 실제 판매가 이뤄진 영업팀을 통해 고객과 합의가 이뤄지는 구조다.

NH농협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자율조정협의회 구성과 고객별 세부 조정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배상금 지급에 나선 은행들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19일 기준 15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10건 내외 정도만 배상금 지급이 이뤄진 상태다.

은행들도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제재에 들어간 상황에서 자율배상이 얼마나 빠르게, 또 많이 이뤄졌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자율배상 규모에 따라 제재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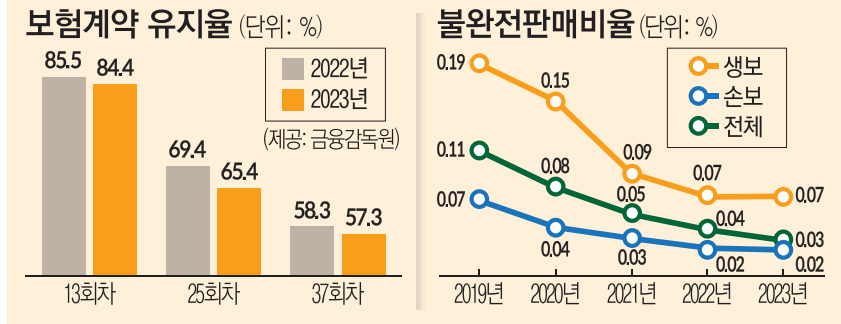
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ELS 투자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에 대한 거부 움직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배상안 철회 요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600여 명이 동의, 41%의 동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강경한 투자자들은 차등배상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실제 고객들과 접촉하고 있는 영업점 직원들도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커 놀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시일이 다소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예상보다 더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만 법적 분쟁이나 금감원 분쟁 조정위원회로 가게 되면 은행으로서도 좋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배상안을 마련해 고객들과 합의점을 찾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선영 기자 moon@



高금리에 저축성 보험 해지 ‘쑥’ 10명중 6명, 5년 못버티고 해약

방카슈랑스 2년 유지율 50% 미만

금감원 ‘과당경쟁 소비자피해 우려

유지율 저조 보험사 사후 관리”

보험에 가입해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로 저축성 보험을 해약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1년(13회차) 평균 보험계약 유지율은 84.4%로 나타났다. 2년(25회차) 유지율은 65.4%, 5년(61회차) 유지율은 41.5%에 그쳤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떨어지는 것은 보험을 계약한 뒤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하는 계약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2021년 이후 고금리 기조로 인한 저금리 저축성보험의 해지 증가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 비중이 높은 생보사의 유지율이 특히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전속과 법안대리점(GA) 채널의 경우 보험계약 초기(1년) 유지율은 각각 86.0%, 87.9%였다. 하지만 수당환수기간(2년 이내) 이후 계약해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년(25회차) 이후 유지율은 크게 떨어졌다. 특히 방카슈랑스 채널 유지율이 가장 저조했다. 저축성보험 해지 등으로 2년 이후 유지율은 50% 미만으로 하락했다.

보험설계사는 60만6353명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다만 보험사 전속설계사 정착률(1년)은 47.3%로 전년(47.4%) 대비 내려갔다. 특히 생보사의 경우 36.9%로 전속설계사의 GA 이동 등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하락했다. 같은 기간 손보(53.2%)는 소폭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불완전판매는 개선세를 보였다. 지난해 보험사 불완전판매비율은 0.03%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0.0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2019년 0.11%였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20년 0.08% △2021년 0.05% △2022년 0.04%였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의 영업채널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단기간 납종신보험 등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단기간 납종신보험 환급률 경쟁과 특정 담보의 보장한도 증액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 및 과당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특히 보험 유지율이 저조한 보험사의 개선 계획을 확인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 등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 보험사 검사시 영업조직(사회사 GA)에 대해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계약전환(승환)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경우 현장검사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재은 기자 dove@

하나은행,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에디트컬렉티브와 업무협약

부동산 자산관리 ‘하나 올케어 솔루션’ 출시



김영훈(가운데)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부행장이 손형준(맨왼쪽)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CMO와 전주형 에디트컬렉티브 대표와 함께 서울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공간관리 전문기업인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인공지능(AI) 기반 기획설계 플랫폼 기업인 에디트컬렉티브와 함께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 ‘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하나 부동산 올케어 솔루션’은 하나은행 WM본부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직접 수행하는 프리미엄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다. 고객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가치평가·분석해 고객 투자 성향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농협銀, 대출한도·금리 한눈에

NH농협은행은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 한도와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대출비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출비교서비스는 NH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8개 금융사의 25개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으며, 상반기 중 10개사 27개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범근 기자 nova@

<국내주식시장>

“국장은 단타용”…ETF 개미, 밸류업에도 투심 차별화

개인 'ETF 장바구니' 살펴보니

30대 직장인 이용현 씨는 요즘 스마트폰 증권 앱으로 주식시장을 확인하느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뉴스에 지난 3월 중순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이 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면서다. 더욱이 한 번에 큰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2배 레버리지 상품에 2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한 달여 만에 평가 손실 상태다. 그는 인버스 상품으로 '물타기' (추가매수를 통해 평균단가를 낮추는 것)를 할까 고민중이다.

자영업자 김광중 씨는 연초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와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김 씨는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높은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

매수액 10위 중 7개 국내 ETF

1위 코덱스 레버리지 2300억

레버리지·곱버스 상품에 몰려

美ETF는 배당·성장동력 장투

국내선 파생상품지수 단기매매

코스피 성장성 불신 '투심 반영'

을 지급해오며 성장성과 재무 건전성을 인정받은 우량 고배당 기업으로 구성됐다”면서 “자금 여력이 된다면 추가 매수에 나설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동학개미' (국내 주식투자자)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종목이나 지수 기초자산 ETF투자는 단기 차익을 노린

상품 투자자가 많다. 반면 미국 주식이나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투자는 장기 보유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22일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올해 ETF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2·6위 CD금리, 5위 KODEX 레버리지를 제외하고 모두 미국 상장 ETF가 차지했다. 개인들은 미국 S&P500, 미국배당다우존스, ACE 미국 30년국채액티브(H), 미국나스닥100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등을 꾸준히 순매수했다. 누적 순매수액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전체 매수액만 봤을 때 2·8위 CD금리, 9위 미국 S&P500을 제외하면 상위 10종목 중 7종목이 국내 ETF였다. 개인들이 매수한 ETF는 200선물 인버스 2X, 코스닥150레버리지, 2차전지 TOP 10인버스 등 레버리지 또는 곱버스(2배

인버스) 상품에 몰려있었다. 특히 1위를 기록한 KODEX 레버리지 한 종목에만 23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순매수 규모만 놓고 봤을 때는 ETF 시장에서 국내 ETF의 거래량이 부진하게 보이지만, 전체 매수액을 보면 손바뀜(매수도)이 활발했다는 방증이다.

투자상품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미국 ETF는 배당, 성장동력 등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상품이 많았다. 반면, 국내 ETF는 레버리지·인버스와 같은 파생상품지수 ETF가 주류를 이뤘다.

연초 밸류업 동력에도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다시 2600대로 주저앉는 등 국내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어렵다는 불신이 ETF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용수한국투자신탁자산운용ETF운

용 본부장은 “코스피200과 S&P 500지수를 비교해보면 1년 누적수익률이 각각 9.05%와 23.1%에서 5년 수익률은 39%와 85.5%로 크게 차이나는 편이다. 현재 매크로 상황을 살펴봐도 미국 중심으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점 때문에 미국주식과 상품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 직접투자도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1143억 9000만 달러(157조 7000억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외화증권 결제금액도 직전 4분기보다 40.4%나 증가해 1282억 8000만 달러(176조 8000억 원)를 기록했다. 예탁원이 관리하는 전체 외화증권 중 미국은 약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시총 1兆 증발한 하이브... 증권가 “하락세 과도”

어도어 경영권 탈취 시도에 감사권 주가 이틀 연속 약세 21만원 마감 어도어 매출 비중 5%... 영향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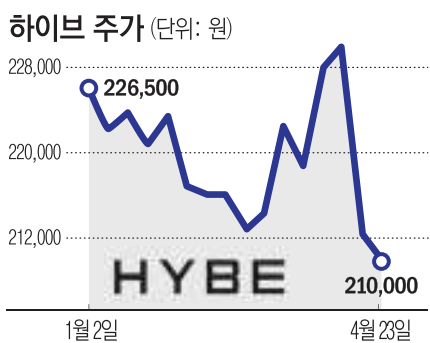
“뉴진스까지 피프티피프티처럼 흔들린다면 더욱 악재. 호재거리가 하나도 없어 보인다.”

“하이브야 주가 30만 원은 거뜰하다. 역대급 저가다. 이번 일만 잘 넘기면 계속 올라간다.”

K팝 업계 1위 업체인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내분으로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지만, 온라인 주식종목 토론방에서는 하이브의 주가 급락에 분통을 터트리는 ‘개미’ (개인투자자)들의 글들이 넘쳐난다.

23일 하이브는 전거래일 보다 1.18% 하락한 21만 원에 마감했다. 이틀새 시가총액 1조 원 가까이 증발했다.

하이브는 자회사 어도어 경영진의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을 감지, 어도어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했다. 이사회 교체 등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며 민회진 어도



어 대표의 사임을 요구했다.

박지원 하이브 최고경영자(CEO)는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이번 감사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에 보낸 감사질 의서에 응답이 없더라도 최대주주 자격으로 주총 개회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최대 2달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향후 뉴진스 활동 차질에 따른 하이브의 실적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뉴진스는 5·6월 음반 발매와 일본 데뷔, 팬미팅 등이 예정돼 있다.

오지우이베스트투자증권연구원은 “뉴

진스의 전속계약권이 하이브에 귀속돼 있다. 따라서 활동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증권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도 하이브가 받을 타격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하이브 전사 대비 어도어 매출액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영업이익 기여도는 11%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하이브 내 어도어의 올해 영업이익 기여도는 14%로 추정한다”면서 “하반기 뉴진스의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1개 앨범(하반기 정규) 발매 차질에 그칠 것으로 보여, 실적에 미칠 영향은 10% 미만이다”라고 전망했다.

이날 하이브 보고서를 낸 증권사들은 모두 투자 의견 ‘매수’와 기존 목표주가(한화투자증권 34만 원, 한국투자증권 31만 5000원, NH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31만 원)를 유지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분통을 터트린다. 한 투자자는 “회사 내부의 엉뚱한 문제로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줬다”고 분노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도대체 하이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서봉균(앞줄 오른쪽 네 번째)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크리스티안 마군(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앰블리파이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거래소에서 열린 '오프닝 벨'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삼성운용, SOF 뉴욕거래소 상장기념 ‘오프닝 벨’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전문 운용사 앰블리파이와 11월 뉴욕거래소에 ‘Amplify Samsung SOF ETF’ (SOF)를 상장한 것을 기념해 22일(현지 시각) 장 시작을 알리는 뉴욕거래소 ‘오프닝 벨’ 행사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SOF는 삼성자산운용의 전략적 제휴사인 앰블리파이가 뉴욕거래소에 상장하고 삼성자산운용 뉴욕현지법인인 운용을 전담하고 있다. SOF는 KODEX 미국달러

SOFR금리액티브 ETF의 구조를 복제한 상품으로, 국내 토종 ETF가 미국 증시에 수출된 첫 사례다.

SOF는 미국의 무위험지표금리(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상품이다. SOF는 월분배형 상품으로 상장 당시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난 2000억 원 수준의 순자산과 연환산 배당률 5.34%를 기록하고 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기업탐구

카카오

주가 곤두박질치면서 카카오가 ‘개미지옥’이 됐다. 김범수카카오창업자는 “이름까지 바꿀 각오”로 쇠신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인공지능(AI) 사업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평가다.

4월 들어 8곳의 증권사(다올투자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KB증권·한화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상상인증권)는 카카오 목표주가를 줄 줄이 하향했다.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시장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구체적인 성장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23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날 대비 3.06% 내린 4만 7500원에

분식회계 논란·사법리스크 악재

2021년 최고점 대비 70% ‘하락’

쇄신발표에도 증권가 목표가 뚝

장을 마쳤다. 액면분할 이후 2021년 6월 24일 기록한 최고점(17만 3000원)과 비교하면 70% 넘게 쪼그라들었다.

성장주로 묶이는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나스닥 상승세와 함께 고공행진 중인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실적이 흔들리면서 주가도 휘청이는 모양새다. 카카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7조 5570억 원으로 지난해보

다 10.0% 증가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4609억 원으로 10.1%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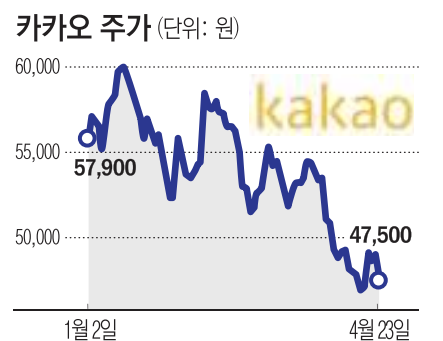
최근 회계 기준을 정정하면서 ‘역대 최대’라는 기록이 갈아엎어진 결과다. 카카오는 지난해 매출(8조 1058억 원)이 사상 최대치,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모바일리티를 두고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으며 제재를 통지하자 카카오는 재무제표상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 순액법으로 바꿔 재공시했다.

각종 악재도 주가 발목을 잡는 배경이다. 앞서 카카오 계열사는 상장 직후 주

요 경영진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대규모 행사해 주가를 끌어내렸다. 창업자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조작 혐의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추가 악재다.

불안한 개인 투자자들도 눈길을 거두고 있다. 올해 개인은 카카오를 1473억 원어치 팔아치우고 기관이 909억 원, 외국인이 629억 원을 순매수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크다. 시장에서 전망하는 1분기 매출액 컨센서스는 1조 9995억 원, 영업이익 1271억 원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최근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래 성장동력도 아직은 안갯속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취임 후 ‘AI 강화’를 강조했지만, 카카오의 AI 경쟁력은 상당 수준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공개할 예정이던 대규모 언어 모델(LLM) ‘코(Ko)GPT 2.0(가칭)’은 현재까지 ‘공개일 미정’ 상태다.

김효숙 기자 ssook@

‘줍줍 광풍’에도 외면받는 이 곳…‘냉·온탕’ 청약 시장

‘더샵 둔촌포레’ 14가구 무순위
2만여명 몰려 1530대1 경쟁률
앞서 개포 ‘디에이치…’ 33만대1
반면 ‘화곡 더리브’ ‘인천학익’ 등
수차례 임의공급에도 한자릿수
“시장 침체 속 양극화 심해질 것”

올해 청약시장 수요자들의 ‘돈 되는 곳’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단지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감지된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줍줍(무순위청약)’에는 100만 명 이상이 접수하며 ‘광풍’이 부는 반면, 14차례 무순위 청약에도 한자릿수 경쟁률에 그치는 곳이 나오는 등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상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의 계약 포기 등으로 풀린 전용면적

84㎡ A형 1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결과 2만1429명이 접수해 1530.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샵 둔촌포레는 둔촌 현대1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지하 2층~지상 14층, 전용 84~112㎡, 총 572가구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국내 최초로 별동을 신축한 리모델링 단지로, 별동에 들어선 74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됐다. 분양가는 12억~13억원 대로 인근에 위치한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보다 최대 7억 원 가량 저렴하다. 때문에 1순위 청약 당시 평균 경쟁률 93.06대 1을 기록하며 흥행했으나, 오는 11월까지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점에 부담을 느낀 당점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며 14가구가 새 주인을 찾으려 나왔다.

올해 초부터 이처럼 최대 수십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쏟아지면서 청약시장을 향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앞서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

올해 주요 단지 무순위 청약 결과		※ 출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단지명	모집가구	접수자	평균 경쟁률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	101만3456명	33만7818대 1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2가구	57만7500명	28만8750 대 1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2가구	21만2201명	4894대 1
더샵 둔촌포레	14가구	2만1429명	1530.64대 1
화곡 더리브 스카이	20가구	71명	3.6대 1
포레나 인천학익	52가구	105명	2.01대 1

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최고 20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며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총 101만3456명이 몰리며 평균 33만781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줄줄이 이어진 무순위 청약도 흥행하며 연타석 홈런을 날렸다. 이달 8일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의 계약 취소 물량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57만 7500명이 청약통장을 던져 평균 28만 8750 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또 ‘3억 로또’로 관심을 모은 고양시 덕양구 ‘DMC한강자이더헤리티지’ 2가구 모집에는 21만2201명 등이 몰려 48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주에도 전국 9개 단지에서 무순위 물량이 쏟아질 예정으로, 역대급 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거둬들인 집주인 모시기에도 꾸준히 외면 당하며 초라한 성적을 받아든 단지도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이달 3일 총 20가구에 대한

14차 임의 공급을 진행했지만, 총 71명이 접수해 3.6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또 3차 임의공급을 진행한 ‘포레나 인천학익’은 52가구 모집에 105명이 접수해 평균 2.01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전체 5개 주택형 중 4개 주택형은 간신히 한자릿수 경쟁률을 넘겼으며 1개 주택형은 미달 됐다.

전문가는 이같은 양극화의 기저에는 지속된 주택시장 침체가 자리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와 입지 메리트가 적은 곳들은 집값이 상승 전환하더라도 잔여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심형석 우대뎡연구소 소장(美IAU 교수)은 “주택시장 조정기가 이어지면서 과거 시세로 분양하는 곳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른바 되는 상품만 되는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LH가 아파트 ‘적정 공사기간’ 재산정 나선 까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확보 연구에 착수했다. 아파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산정기준 적정성 검토와 함께 장미철(우기) 등 기타 날씨 여건을 최신 기준으로 반영해 비(非)작업 일수도 새롭게 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LH 혁신안 시행 조치의 후속 대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연내 빠르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LH는 전날 ‘적정 공기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과업 내용은 ‘공동주택 부문 동절기 골조 공사 기간 검토’와 ‘공동주택 비작업 일수 최신화’, ‘도심지 및 소규모 공사 보정방안 재검토’ 등으로 구성된다. 모두 LH 핵심 사업인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골조 공사 기간과 관련해선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건설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비교 등으로 공사 기간 객관성을 확보한다. 동시에 ‘동절기 중 골조 공

나라장터에 연구용역 발주
동절기 골조공사·우기 비작업일 등
“오래 걸려도 튼튼하게” 가이드라인
지난해 나온 ‘LH 혁신안’ 후속조치

사 불능 기간 산정 시 공사 관리’와 ‘기후 여건(동절기 및 우기)’ 반영 등이 포함됐고, 비작업 일수 최신화 작업에는 기후 여건과 최근 10년간 기상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LH 공사기간 산정기준 개선 절차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LH 혁신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LH 혁신안에는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 이에 걸맞은 공사비를 책정하기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LH 용역안에 동절기 골조공사 불능 기간 산정 관련 내용이 담긴 만큼 앞으로 공

사가능 일수를 더 보수적으로 잡아, 공사 비용이 늘더라도 공사 기간을 늘리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적정 기간을 확보하면 안전성이 그만큼 늘어나겠지만, 공사비가 늘어날 것이고 특히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빠른 시공과 100% 품질 확보 모두 잡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사 기간과 비용 증가를 일종의 ‘사회적 비용’으로 보고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이날 올해 신규 분양 아파트 5169가구를 포함해 토지와 분양상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일반 공공분양 2293가구와 신혼희망타운 2876가구를 공급한다. 단지 내 분양상가의 경우 총 132실이 공급되며 토지는 수도권 808필지(193만㎡)와 지방권 1004필지(257만㎡) 공급이 예정됐다.

정용욱 기자 dragon@

서울 광장동 ‘포세스한강’ 1.4억 對 전남 장흥 921만원 3.3㎡당 아파트 분양가 최대 15배 차

서울 내 3.5배 차로 가장 커
부산·경기도 2.4배 뒤이어

올해 전국 분양 단지의 3.3㎡당 분양가 격차가 최대 1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연내 분양한 아파트 중 3.3㎡당 가장 높은 가격에 분양한 사업지와 가장 낮은 가격에 분양한 사업지 간 분양가 차이는 15배였다.

지난 1월 분양한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세스한강’의 3.3㎡당 분양가는 1억3770만 원으로, 이달 전남 장흥군 대덕읍에 선보인 ‘대덕읍더포레스트에코파크’ 921만 원과 비교하면 3.3㎡당 1억2849만 원 격차를 보였다.

3.3㎡당 아파트 간 분양가의 양극

화는 같은 지역(지자체) 내에서도 뚜렷했다. 격차가 가장 컸던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세스한강’(1억3770만 원)과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3932만 원)’ 간 분양가 차이는 3.3㎡당 9838만 원으로 3.5배 차이가 났다.

지역 내 분양가 차이가 두 번째로 큰 지역은 부산이다. 분양가 간극은 2.4배로 집계됐고, 경기도 역시 2.4배를 기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아파트 분양가의 격차는 입지의 호불호가 결합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신규 분양과 기존 구축, 경매, 분양·입주권 등을 상품별 유형을 고루 비교하며 가성비 높은 주택 매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노후 아파트 진단·시공·사후관리 원스톱으로 GS건설 자회사 하임랩 ‘리모델링 솔루션’ 론칭

사후 고객관리 서비스도 제공

GS건설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토털 솔루션 자회사인 하임랩(HEIMLAB)이 노후아파트 진단에서 인테리어까지 원스톱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임랩 리모델링’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임랩 리모델링’이 기존의 인테리어 업체와 차별화된 점은 디자인 개선 위주의 리모델링에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단열, 누수와 같은 기능적인 문제와 악취, 공기질과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진단해 고객에게 점진 보고서를 제공하고, 고객 취향에 맞춘 1:1 디자인 상담을 통해 기능과 디자인 모두를 겸비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서비

스라는 것이다.

또한 고객과의 시공 상담을 통해 산출된 3D이미지와 도면을 바탕으로 전담 시공담당자의 밀착 현장관리를 통해 높은 시공 품질을 만들고, ‘에프터 하임(After HEIM)’을 통해 사후 고객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임랩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 계약, 이력 관리 등을 통합으로 제공해 고객의 편의를 높였다.

하임랩의 주요 수요층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10~25년 차 이상의 아파트 중 주거환경 관리가 필요한 세대다. 현재 서비스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이며 올해 하반기 서울시 내에 10개 이상의 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하임랩 관계자는 “아름다움과 더불어



하임랩 리모델링 서비스 시공이 완료된 모습. 사진제공 GS건설

건강한 공간의 가치까지 생각한 주택 기능 진단 기반의 리모델링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인정받겠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주택 인허가, 계획 대비 82%…서울 32% 그쳐

국토연구원, 지난해 실적 분석
이전 18년간 평균에도 못 미쳐
“주택 공급 지연 개선책 시급”

주택 공급 계획에 비해 실제 인허가로 이어지는 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하기로 한 주택 10개 가운데 3개만 인허가가 이뤄져 주택 공급 지연이 심각한 모습이다.

국토연구원은 23일 김지혜 연구위원 등 연구진이 분석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이 지난해 공급 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을 분석한 결과, 전국은 82.7% 수준이었다. 반면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인허가 실적도 평균에 못 미쳤

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인허가 실적에 비해 지난해 수도권 실적은 인허가 69.0%, 착공 47.2%, 준공 82.2%이었다. 비수도권의 실적은 인허가 79.5%, 착공 47.5%, 준공 65.5% 수준으로 전국과 유사하게 착공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은 인허가 37.5%, 착공 32.7%, 준공 42.1%로, 모두 50%조차 넘지 못해 전국의 실적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았다.

김지혜 연구위원은 “단기 방안으로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리츠를 활용한 사업 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 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중장기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지은 기자 hje@

편안한 승차감, 강력한 퍼포먼스… 가성비까지 채웠다

타보니 현대차 ‘더 뉴 아이오닉 5’

조용한데, 강했다. 전기차 특성대로 가속페달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차의 움직임으로 반영한다.

고급 세단을 타는 것 같은 안정감도 더해졌다. 동승자 역시 손을 치켜세웠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개척한 현대차 아이오닉5가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왔다. 2021년 2월 출시된 아이오닉5는 3년 동안 국내에서만 약 6만7000대, 전 세계에서 약 27만대 판매된 베스트셀링 전기차다. 판매량뿐만 아니라 현대차에도 아이오닉5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현대차의 전동화 전략을 응집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첫 모델인 동시에 대중교통 택시로도 보급돼 시민들이 전기차를 처음 접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오고 있다.

더 뉴 아이오닉5를 3박 4일 동안 시승해보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승차감과 정숙성이다. 전기차 특유의 급가속·급감속 느낌이 없어지고, 고급 내연기관 차에서 느낄 수 있었던 부드러운 승차감을 준다. 승차감 개선을 위해 모터 세팅에 큰 노력을 기울인 점이 주행 시 곳곳에서 느껴졌다.

속도와 노면 상태 등에 따라 타이어에 다르게 전달되는 주파수를 활용해, 노면 진동을 완화하는 ‘주파수 감응형 속압소버(Shock Absorber)’ 기술이 고급스러운 주행감을 준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실제로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도 덜컹거리는 느낌이 확연히 줄었다.

고속주행 구간에선 페달을 깊게 밟으니 전기차 특유의 가속력이 돋보였다. 별다른 흔들림 없이 순식간에 100km에 도달했다. 전기차답게 소음도 거의 없다. 가볍고 빠르게 속도를 내주면서도 순간 균형감을 잃지 않는 주행감이 인상 깊었다. 아이오닉5는 택시로 많이 보급돼 있어서 뒷자리에 탑승한 적이 많았다. 당시에도 승차감이 좋다고 느꼈었는데, 운전석에 앉자 더 뉴 아이오닉5의 매력을 더 잘 느낄 수 있었다.

아이오닉5는 3년 전 출시 당시 파격적인 외관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다. 포니헤리티지를 계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얼굴로 대중들에게 ‘현대차 첫 전용 전기차’를 효과적으로 알렸다.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은 기존 모델과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지만, 기존 모델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디테일이 수정됐다.

거울 형태가 아닌 디지털 형태의 사이드미러가 대



3년만에 부분변경… 모터 세팅 공들여
전기차 특유의 급가속·급감속 없어져
1회 충전에 485km 주행… 트렁크 널찍
인포테인먼트도 강화… 가격은 그대로

폭 개선됐다. 투박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마감을 고급스럽게 변경하고 접었을 때 기존 모델보다 차체에 가까이 밀착돼 좁은 공간에 주차할 때도 불안하지 않았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뿐 아니라 공기 저항을 10% 감소시킨다는 장점도 있다.

또 전면 범퍼가 강화돼 인상은 더욱 강렬해졌고, 후방의 스포일러도 길게 뻗아 날렵한 이미지를 더했다. 후면 유리창에는 기존에 없었던 와이퍼를 추가해 비가 올 때 시야 확보가 쉽도록 개선했다.

신형 아이오닉5에는 최신 인포테인먼트·편의 사양이 대거 탑재됐다. 특히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connected car Navigation Cockpit)를 탑재했다. 기존 내비게이션에서만 가능했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의 범위를 제어기까지 확대 적용해 차량의 주요 전자 제어와 연계된 기능을



위부터 ‘더 뉴 아이오닉 5’ 실내, 차체에 밀착시킨 디지털 사이드미러, 이마트에서 충전하는 모습.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영상과 고품질 음원을 즐길 수 있는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사용 가능한 자연어 음성 인식 기능이 적용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기반의 첨단 소프트웨어 경험을 제공한다.

아이오닉5는 84.0kWh의 4세대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복합·2WD 모델 기준)가 458km에서 485km로 늘어났다. 배터리 용량이 늘었지만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350kW급 초고속 충전 시 18분 이내 배터리 용량의 80%(10→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최근 고속충전 시설도 확충되고 있어 도심을 주행하는 데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충전을 시도했는데, 15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20% 이상 충전이 이뤄졌다.

일반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서 느낄 수 없는 기대 이상의 공간감도 장점이다. 널찍한 트렁크는 골프클럽 2개가 거뜬히 들어간다.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가족들에게 가족용 차로도 제격이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의 상품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도전 트림의 가격을 동결해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을 끌어 올렸다.

송영록 기자 syr@

블루오션 떠오른 ‘사용 후 배터리’… 600조 시장 선점 경쟁 시동

국내 기업 재활용 통한 순환경제 초점 탄소 줄이고 원재료 공급망 확보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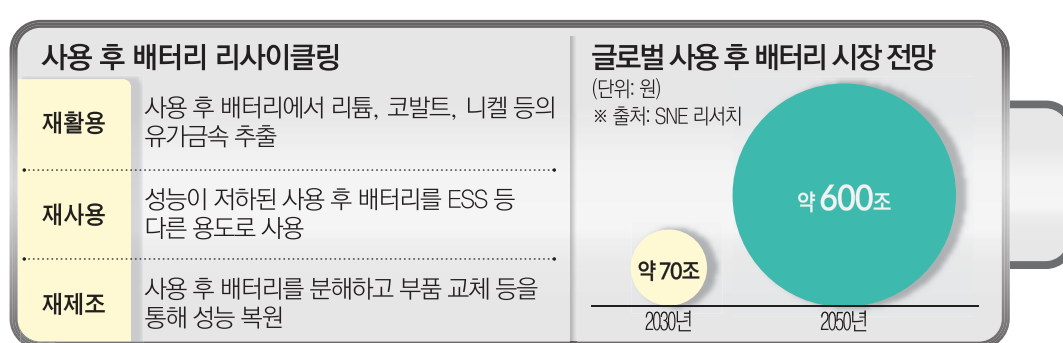
전기차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2050년 6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 경쟁도 치열하다.

사용 후 배터리는 크게 재활용, 재사용, 재제조 등 3가지 방식으로 활용된다.

재활용은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의 유가금속을 추출해 배터리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은 재사용, 배터리를 분해하고 부품 교체 등을 통해 성능을 복원하는 것은 재제조라고 한다.

국내 기업들은 주로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광물을 추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 자립도를 높일 방안



으로 꼽힌다.

포스코홀딩스는 중국 화유코발트, GS에너지와 합작해 광양 울촌산업단지에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 포스코HY클린메탈을 설립했다. 포스코HY클린메탈은 폐배터리를 분쇄해 나온 블랙파우더에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유가금속을 추출한다.

에코프로그룹은 에코프로씨엔지에서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재활용을 통해 추출한 원료로 전구체, 양극재 생산을 모두 아우르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구현해냈다.

주요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배터리 셀 제조사들도 재활용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SK온은 지난해 말 헝가리에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전담하는 법인을 설립했다. 유럽연합(EU)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배터리 규정(Battery Regulation)’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EU는 2031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활용 원료 최소 비중을 니켈 6%,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등으로 맞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2036년부터는 이 비중이 니켈 15%,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등으로 상향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화유코발트와 협력하고 있다.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스크랩과 폐배터리 등에서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공장

을 중국에 건설 중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원료는 최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난징공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비중이 늘면서 재활용뿐만 아니라 재사용 방식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LFP 배터리에서는 뽑아낼 금속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이유에서다. LFP 배터리가 보편적인 중국에서는 폐배터리를 대부분 매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재사용 분야는 ESS다. ESS용 배터리는 전기차용보다 성능이 낮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가 낮은 LFP 배터리를 ESS에 재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에선 무엇보다 ‘친환경’이 중요한 만큼 재활용·재사용·재제조 측면에서도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사용 후 배터리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관리 체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라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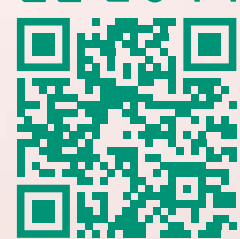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표 첫 ‘기후소송’… “정부 대응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현재 4년 만에 첫 변론

국내에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이 4년 만에 헌법재판소에 열렸다.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현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재 대심판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탄소중립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2020년 3월 청소년 기후 행동 회원 19명이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이후 같은 취지로 시민 123명의 헌법소원(2021년 10월)·영유아 62명의 헌법소원(2022년 6월)·시민 51명의 헌

청소년 제소 뒤 4건 병합 심리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여부 쟁점

“정부 목표 작위적… 계획 없어”

“파리협정 원칙은 차별화 책임”

해외선 정부 책임 인정 판결도

법소원(2023년 7월)이 제기되면서 4개 사건이 하나로 병합됐다.

이들은 예상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상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미래 세대의 권리를 끌어다 쓰고 있는데, 정작 정부의 목표 수립과 이행은 미비하거나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를 줄이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2050년에는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 측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계획은 지나치게 안일하고 작위적인 목표”라며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에 따라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지만, 한국은 현재까지 제출된 모든 목표를 통해 감축한다고 해도 온도가 그 이상으로 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년도 목표치뿐 아니라 매년 배출량이 중요한데 연도별 대책은 없고 2031년부터는 아예 계획이 없다. 앞선 연도에 실패했을 때 다음연도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며 “정부는 앞서 한번도 목표를 지킨 적 없고, 집행을 보장

하기 위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후 변화 위기가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현재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 변호인단은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은 ‘공동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다. 각 국가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감축 경로에서 하나의 수치만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파리협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청구인들의 구체적, 직접적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와 미래 상황을 동일하게 비교해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석 현재소장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최근 유럽 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재단인 우르헨다가 2013년 시민 886명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위기를 막기에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최종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정부의 기후보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독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겼다. 지난해 8월 미국 몬태나주 법원도 주정부의 화석연료 친화 정책이 미래 세대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청소년들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이현 기자 spes@

범죄 목적 계좌 602개 개설 뒤 피소 대법 “가짜 서류지만 업무방해 아냐”

“은행 담당자 충분히 심사했어야”

범죄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명의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을 한 패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 변경등기를 마치고, 시중은행 지점에서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기관들로부터 35개 유령법인 명의의 602개 계좌를 개설해 피해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금융기관 계좌개설 업무담당자들이 자격요건과 사실 확인 등을 충분히 심사하고 판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제출된 서류들이 진본인지를 원본대조를 통해 심사하는 업무는 은행 본연의 기능이어서 계좌개설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는 책임은 계좌개설 실무자가 지기 때문이다. 만약 은행에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심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기 힘들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업무방해 유죄를 인정했다. 은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 담당자가 피고인 등에게 금융거래 목적이나 기타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지 등에 대해 필요한 심리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업무방해 부분을 작권으로 파기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서 하나의 형을 정하였으므로, 전부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박익경 기자 eekpark@



코인 사기 신종 피싱 범죄단체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피싱범죄수사계 관계자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리

당방 피해보상을 미끼로 가짜코인 투자를 유도, 수십억 원을 편취한 신종 피싱 범죄단체 검거와 관련한 연합뉴스

“의대증원 같은 입시 변경, 2년 전 예고해야”

지난해 ‘킬러문항’ 이어 또 차질

급작스런 변화에 수험생 대혼란

교육전문가 “규정 보완” 한목소리

의과대학 증원 문제로 2025학년도 대입전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학과별 정원과 같이 변경시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2년 전에는 미리 예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각 대학은 오는 30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19일 각 의대가 내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정원 증원분의 50~100%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모집인원을 결정한 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다음달 31일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

강’에 반영, 정원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당장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고3 수험생의 수시 원서접수는 9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이 대입 사전예고제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수험생 불안 및 사교육 증가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대학입시 전형의 큰 틀을 4년 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들은 1년 10개월 전에 전형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당해 직전 5월까지 전형 계획을 바꿀 수 있다. 의대 정원이 내달 말까지 확정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유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지금 상황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면서도 “대입은 안정성이 중요하고, 대입을 사전에 미리 예고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보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는 정부가 킬러문항 문제로 입시판을 흔들었는데, 올해 의대 정원도 큰 문제가 됐다”면서 “5월이다 했는데 아직도 의대 정원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은 혼란일 수밖에 없다. 애초 의대 정원을 발표할 때부터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는 적어도 2년 전에는 미리 정하도록 하는 등 규정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시생들이 대입 일정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데, 대입을 예측할 수 없어 혼란이 야기되면 사교육 기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고액 판매하고 고액 컨설팅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월 임대료 1만원”… 동작구 ‘양녕청년주택’ 입주

서울 한복판에 월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양녕 청년 주택’의 입주가 시작된다.

23일 동작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 주택 ‘양녕 청년 주택(상도동 275)’의 개소식을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녕 청년 주택은 구에서 직접 기존 공영주차장이었던 부지에 복합시설을 신축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규모는 연면적 3229㎡, 지하 1층~지상 5층, 총 36세대를 포함한 청년특화시설, 공영주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월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약 10%보다 저렴한 1만 원이다. 이는 구의 출자 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가 제1호 지역 공헌 사업으로 수익금을 청년 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에 활용해 적용할 수 있었다. 보증금도 기존 1400만 원에서 절반가량의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양녕 청년 주택 내 2층은 청년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공간으로 꾸며진다. 지상 3~5층은 세대별 공급 면적이 약 35㎡이며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전기육탕, 레인지 후드, 일체형 가구장 등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 주택이다.

입주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공개 추첨을 통해 호실 배정을 완료했다. 입주는 24일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김채빈 기자 chaebi@

서울 유일 편백숲… “피톤치드 듬뿍 마시며 힐링하세요”



은평구 ‘봉산 무장애 숲길’

“봉산 무장애 숲길에서는 젊은 사람들부터 장애인분들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힐링할 수 있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최근 봉산 무장애 숲길 프레스투어를 통해 “편백나무로 조성된 봉산 무장애 숲길은 사람들이 와서 대화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산에 오르기 어려우신 장애인분들도 무리 없이 올 수 있도록 만든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이곳에 와서 투병하시는 분들이 건강을 되찾으시고, 많은 분이 힐링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서울형 치유의 숲’으로 꼽히는 ‘봉산’은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 경계에 있는 높이 209m의 산이다. 구는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총 9.8km 길이의 봉산 무장애 숲길을 6단계로 나누어 조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4단계 5.2km 공사를 완료했으며, 2026년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특히 봉산 무장애 숲길은 서울 내에서

서울형 ‘치유의 숲’으로 손꼽혀 2026년까지 총 9.8km 숲길 확대 코스 완만해 남녀노소 쉽게 이용 곤충호텔·쉼터 산책 재미 더해 천년고찰 ‘진관사’ 문화체험 풍성

는 보기 어려운 편백나무를 만나볼 수 있다. 편백나무는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수종으로 서울시 최초로 봉산에 2014년부터 1만3400그루를 심어 울창한 숲과 함께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변화 중이다. 소나무의 약 3배 이상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편백나무는 공기 정정 기능이 있어 미세먼지·황사 저감, 살균, 진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산 무장애 숲길은 하나의 매끄러운 데크길로 조성돼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숲길 중간마다 폐목재를 활용한 사슴 가족 등 다양한 목공예품과 나뭇더미를 곳곳에 쌓아 숲속 작은 생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운 ‘곤충 호텔’도 만나볼 수 있다. 또 구민들이 편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휴게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마련됐다.



서울 은평구 봉산무장애숲길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김미경 은평구청장.

사진제공 은평구

김근주 은평구 공원녹지과장은 “편백나무는 중부지방인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은평에서만 자라고 있는 나무”라며 “피톤치드가 방출돼 황사, 미세먼지 저감 등 효과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수종”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봉산 무장애 숲길 내 데크 주변이나 나대지 등에 편백나무를 더욱더 많이 식재할 계획”이라며 “10~20년 뒤에는 봉산 무장애 숲길이 편백으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봉산편백나무숲을 이용하는 주민

들을 위해 불광천 새절역부터 봉산 편백나무숲 입구까지 약 1.2km 거리를 ‘내를 건너 숲길 문화거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은평둘레길 전역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분이 이용하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천년고찰 ‘진관사’는 은평 내에서 일상을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진관사는 고려 제8대 현종이 북한산의 암자에 거처할 당시 신변에 위험을 느낄 때 땅굴에 피신시켜준 진관대사에 게 은혜를 갚기 위한 목적으로 창건됐다.

특히 진관사 내에는 3·1 운동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와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 등 항일운동 관련 사료들이 대거 발견됐다. 사료를 남긴 백초월 스님은 3·1 운동 당시 ‘한국민단본부’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해 단장으로 활동하며 독립을 위한 군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와 독립군에 전달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진관사에서 독립운동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칠성각부터 불교 문화에 기반을 둔 다도체험, 명상 프로그램, 공양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김채빈 기자 chaebi@

마포구, 24시간 쾌적한 ‘홍대 관광특구’ 만든다

6월 1일부터 특별 대행영역 추진
쓰레기 수시 수거·미화원 집중배치

마포구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홍대 레드로드(문화예술) 관광특구를 ‘청정지역’으로 만든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마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23일 마포구는 6월 1일부터 서교동, 동

교동, 합정동 일대에 펼쳐진 홍대 레드로드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특별 대행영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65일 24시간 깨끗하고 쾌적한 홍대 관광특구 조성을 목표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재활용쓰레기 수집 운반 △홍대 주요 도로 및 골목길 청소 △가로 휴지통 청소 △담배꽂초 수거함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녹지대 청소 등을 진행한다.

구는 상업시설이 많은 홍대 실정에 맞춰 쓰레기 수거 횟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존 일몰 후 1회 쓰레기 수거에서 3회로 늘리고, 주간 3회 및 수시 수거를 통해 쓰레기 적치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이다. 홍대 관광특구 일대에 설치한 재활용 분리수거함 20여 개와 담배꽂초 수거함 11여 개도 24시간 전담 관리한다.

오전 9시~오후 6시, 오후 9시~익일 오

전 6시 홍대 주요 도로와 골목길에 환경미화원(주간 20명, 야간 10명)을 집중배치해 가로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구 청소행정 관계자는 “이번 영역을 통해 홍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커피찌거기 수거도 포함됐는데 쓰레기 감량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영역 과업 범위에 △불법 주

정차 신고 △불법 광고물 신고 및 제거 △동물사체 처리 등도 포함해 홍대 레드로드 관광특구를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홍대 관광특구의 전담 관리 영역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홍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영역을 통해 홍대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더욱 발돋움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의 세 번째 시리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콘텐츠 큐레이션 매거진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행복할까?
40·50세대 맞춤 주거 가이드

‘은퇴 후 평생 살 집’

매일 밤 11시, 당신이 잠 못드는 시간, 미래를 위한 주사위를 던져보세요

‘dice@11pm’의 세 번째 이야기, “은퇴 후 평생 살 집”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인생 2막을 앞두고 라이프스타일의 변곡점을 맞은 40·50세대는 여생을 보낼 집을 찾고자 합니다.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dice@11pm’은 세 번째 이야기로 노후 주거지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단독주택의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귀농귀촌부터,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프리미엄 실버타운까지 다양한 주거 유형을 소개합니다. 나에게 맞는 집은 무엇인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후기청년의 노후 준비 <dice@11pm>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후기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 시리즈
매일 밤 11시, 미래에 대하여 많은 불안과 고민을 안은 40대 이상을 위해 인생의 지침서를 제공하려 합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이 책 한 권에 집약했습니다. ‘dice@11pm’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지면 구성구석 준비된 QR코드는 독자들을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 안내합니다.

이투데이퍼낸씨

BRAND

은퇴 후 평생 살 집

은퇴 후 평생 살 집

은퇴 후 평생 살 집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 자산설계 ‘꿀팁’

많은 사람이 은퇴준비를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저 건강하고 돈이 좀 있으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은퇴 기간은 20~30년에 이를 정도로 아주 길다.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기보다 젊었을 때부터 목표를 세우고 준비한다면 좀 더 보람찬 것이다. 노후는 안전이 우선이니 예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 않다. ‘좋은 친구는 나와 다른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자산 구조는 서로 다른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예금으로 노후를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더는 ‘적금’은 미덕이 아닌 시대다.

예금, 적금의 알파 수익률을 찾기 위한 공부 가 필요할 때다. 기대 수명은 늘어나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자산 관리가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주식은 여전히 ‘성

장주·가치주’다.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기업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한다. 물론 채권, 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분산투자는 필수다.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들기엔 어려움이 많다. 전 세계 우수 IT기업을 골라 내기도 어렵고,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크다. 또 경기가 좋을 땐 주식을 늘리고, 경기가 위축될 땐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이 역시 일반인이 하기엔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연금이라는 튼튼한 자산이 마련되면 여기에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설계를 하라고 조언한다. 선택과 판단이 어렵다면 증권사들이 추천하는 다양한 랩 상품이나 구독 서비스, 채권 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상장지수증권(ETN) 등을 통해 자산관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펀드

‘AI·반도체’ 빅테크 종목 80% 이상 편입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앞두고 있다. 반도체 산업 관련한 설비투자 규모가 올해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 등 전 세계 많은 제품에서 반도체 칩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AI는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간 반도체 업황에는 PC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전방산업 수요가 주요하게 작용해 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AI가 급부상하는 양상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향후 수년 내 AI가 반도체 기업에 가져올 경제적 이익을 100조 원으로 추산하는 등 두 산업간 발생 가능한 시너지가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투자글로벌AI&반도체TOP10펀드’는 이처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AI와 반도체 두 산업의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다. 해당 펀드는 생성형 AI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빅테크 종목을 80% 이상 편입하고 있다. 동일 유형의 공모펀드 내 빅테크 종목 편입비 평균이 30~40%라는 점을 감안하면, 빅테크 편입비가 상당히 높은 셈이다.

특히 편입한 종목들 상당수가 시장 내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로, 현재 편입종목 상위권에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TSMC △구글 △테슬라 △ASML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펀드는 투자 대상 선별을 위해 자체 분석 시스템을 채용했다. 먼저 AI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분야를 선정하고, 각 핵심분야에 해당하는 종목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걸러내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과 사업에 대한 진입 장벽, 경쟁우위 등 다양한 부문에 점수를 매겨 최종적으로 투자 대상 기업을 10곳 선정한다.

삼성증권 / US SELECT 랩

美증시 저평가 대형주 압축·선별 투자

삼성증권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형주 가운데 저평가된 종목을 압축·선별해 투자하는 ‘US SELECT 랩’을 판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US SELECT 랩’은 3개 투자군을 설정하고 매 크로 환경에 따라 기민하게 비중을 조절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3개 투자군은 △저평가된 이익 성장 종목군 △저평가된 가치 종목군 △저평가된 배당 종목군 등으로 구성됐다.

‘저평가된 이익 성장 종목군’에는 장기간 높은 이익 성장률을 기록하며 투자를 지속해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 선정된다. ‘저평가된 가치 종목군’에는 현재 저하게 저평가된 토지·건물 등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포함된다. ‘저평가된 배당 종목군’은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펼쳐 통상 10% 이상 안정적이고 높은 배당률을 지닌 기업을 타깃으로 삼는다.

‘USSELECT 랩’ 자문을 맡은 본 넬슨(Vaughan Nelson)은 글로벌 탑 운용사 중 하나인 나티시스(Natixis Investment Managers) 계열 운용사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텍사스주를 비롯한 미국 여러 연방주 비영리재단·협회·공공기관 기금과 기업자금 등을 포괄해 약 21조 원을 운용 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USSELECT 랩은 올해도가



장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소수 우량주를 선별 투자하고, 벤치마크인 미국 S&P500 지수 대비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이라며 “본 넬슨의 투자 자문과 더불어 삼성증권의 리스크관리와 리서치·운용역량이 합쳐져 좋은 시너지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US SELECT 랩’은 삼성증권 대표 자문형 랩어 카운트 ‘삼성POP골드랩’으로 출시됐다. 자문형 랩 어카운트는 고객과 증권사가 투자 입김 계약을 맺고 고객 자산을 본사 운용인력이 운용하는 일임 자산 관리 서비스다.

미래에셋증권 / MP(Miraeasset Portfolio)구독 서비스

포트폴리오 주기적 리밸런싱... 간편한 투자관리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메시지로 전달받아 간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MP(Miraeasset Portfolio)구독 서비스’를 2022년 출시했다.

MP구독 서비스는 구독형 서비스로,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받고 리밸런싱을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퇴직연금을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 매번 신경 쓸 필요 없이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자 하는 고객,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포트폴리오를 매수하기 원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다.

MP구독서비스의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는 고객자산배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성향별 최적 자산배분전략을 도출하고, 도출된 전략을 기반으로 실제 편입상품을 분석해 최종 포트폴리오를 선정하며, 사후관리와 수익률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MP구독 서비스 유형은 가입자 연령 및 투자성향에 맞춰 총 4가지로 구성돼 있다. 최대 주식비중은 20~70%까지 구성돼 있고, 최대 주식 비중이 높을수록 기대수익과 변동성이 커진다.

최소 가입금액은 없으며,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가입자는 MP구독 서비스를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



로 받을 수 있다. 받은 포트폴리오의 매매결정은 투자자가 할 수 있고, 구독 신청과 취소는 자유롭게 가능하며, 구독 취소 시에도 아무런 페널티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MP구독서비스는 MP구독 신청 → 메시지로 포트폴리오 전송 → 포트폴리오 일괄매매 승인 → 보유펀드 일괄 매도 → 전송된 포트폴리오 일괄 매수 등의 절차로 포트폴리오가 제공된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약 9000명의 가입자가 약 6900억 원의 퇴직연금 자산을 MP구독 서비스로 운용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 M-STOCK 또는 영업점,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하나증권 / 스노우볼랩

고배당·시총 상위株 투자... 장기복리 효과

하나증권은 미국시장 고배당 투자상품과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복리 투자 효과를 추구하는 스노우볼랩을 추천했다.

스노우볼랩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효과적인 헷지 자산 중 하나인 미국 주식시장 분할 투자를 통해 변동성은 낮추고 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률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 70~80%와 글로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20~30% 비중으로 투자한다. 하나증권의 퀀트알고리즘 기반으로 최적 투자 조합을 산출한다. 매월 발생하는 분배금과 추가 적립금 재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장기 복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나증권은 스노우볼랩 판매 수익 일부를 저출산 문제 극복, 취약 계층 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부할 예정이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장기 복리 효과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미국 주식시장에 고배당 ETF와 글로벌 1등주 조합으로 안정적인 복리 투자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며 “판매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 기부를 통해 상생금융에도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스노우볼랩은 기본형과 선취형 두 가지로 출시했



다.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 원이며, 계약기간은 기본 1년으로 만기에 해지하지 않을 경우 연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상품의 보수는 기본형 후취 수수료 연 1.5%, 선취형 선취 1.0%에 후취 수수료 연 0.5%다. 1년 이내 중도해지도 가능하며 선취형에 한해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최저 가입 금액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증권 영업점과 하나증권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고객 계좌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으로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 운용 결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 전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해야 한다.

NH투자증권 / 하나로 타깃데이트펀드(TDF)

한국인 생애주기 특화 자산배분모형... 안전자산 비중 늘려 은퇴자금 확보



NH투자증권은 'NH아문디자산운용 하나로 타깃데이트펀드(TDF)'를 추천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 하나로TDF는 미국 올스프링(Allspring)과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대수명, 급여인상률 등을 고려해 한국인의 생애 주기에 특화된 자산배분모형을 개발해 구축된 펀드이다.

이 펀드는 국내외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한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을

배분하는 퇴직연금 전용 펀드다. 은퇴 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은퇴 자금 확보에 적합하다.

TDF의 경우, 국내보다 해외 투자 비중이 많아 무엇보다 글로벌 인프라 활용이 중요하다. 하나로 TDF는 세계 최초로 TDF를 출시한 올스프링의 운용 자문과 유럽 1위 운용사인 아문디의 운용 인프라를 연계해 운용 효율을 극대화했다.

하나로TDF는 환노출 전략을 활용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고 있다. 원화, 달

러, 유로화 등 다양한 통화에 분산투자하고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배분하여 변동성 큰 해외주식에 대해 적극적인 위험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광주 NH아문디자산운용 마케팅총괄부사장은 "2019년 하나로 TDF를 출시한 이후 코로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시장 격변기 때마다 시장 방어적인 전략을 유효적절하게 적용하여 양호한 상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하나로 TDF가 퇴직연금 투자자들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 Bond 365

채권 분석 한눈에... 다양한 상품 소액으로

메리츠증권은 고객에게 더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권 종합 투자 서비스 'Bond 365'를 운영 중이다.

'Bond365'는 단기사채, 장내·장외 채권 등 메리츠가 엄선한 채권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채권 종합 투자 서비스다. 모든 채권 상품을 금리별, 기간별 등 필터로 검색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별 특성과 금리를 비교해 투자할 수 있다.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장내외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채권 상품을 적은 투자 금액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기사채 상품인 경우, 메리츠증권 단기사채 4종과 회사가 엄선한 자산유동화 단기사채들을 제공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단기사채 4종은 회사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단기사채로, 만기에 따라 짧게는 7일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물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품별 수익률은 7일물 연 3.55%, 1개월물 연 3.60%, 2개월물 연 3.65%, 3개월물 연 3.70% 등이다. 이외에도 주요 증권사가 신용보강한 자산유동화 단기사채의 경우 최저 3.85%에서 4.48%까지 금리를 제공한다.

장내·장외 채권 상품은 별도 최소 투자금 없이 상품별 매매가에 따라 원하는 수량만큼 거래할 수 있



다. 지난해 말부터 개인투자자들의 채권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채권 개미 열풍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이같이 채권 상품을 확대했다.

메리츠증권은 상품 다양화와 함께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Bond365'의 사용자환경(UI)과 사용자 경험(UX) 디자인도 대폭 개선했다. 'Bond365'에 접속하면 홈 화면에서 메리츠증권이 투자자 성향에 맞춰 추천하는 '오늘의 채권'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또 '수익률 Top5 Bond365'를 매일 업데이트해 단기사채와 장외채권 상품 중 수익률 상위 5개 채권 리스트 수익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KB증권 / 다이렉트인덱싱

나만의 포트폴리오로 투자설계·관리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저평가 종목들에 대한 욕망 가라기기가 이루어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개인 투자시장에도 적극적으로 투자자 주도의 자산관리를 원하는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초개인화 트렌드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KB증권이 지난해 4월 출시한 '다이렉트인덱싱'이란 투자자가 직접 주도하여 투자의 목적, 투자 성향 등에 적합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비스포크(Bespoke,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말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투자자들이 ETF를 넘어 각자 스스로가 펀드매니저 수준의 투자전략을 보다 빠르고 개인화된 방식으로 구현하고 싶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는 이런 투자자의 요구를 가장 스마트한 방식으로 구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는 출시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7만 여건이 넘는 전략 생성으로 고객의 맞춤형 투자구현 니즈를 확인한 바 있다. 지난 달 1일에는 최근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저평가 주중심의 '기업밸류업 저PBR & 저평가주' 프리셋



을 신규 오픈했다.

이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 다이렉트인덱싱 엔진소프웨어인 KB자산운용의 'Myport'를 활용하여 관련 프리셋 3종도 추가했다.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의 투자 프로세스는 △투자 전 △투자 진행 △투자 후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투자 전 단계에서는 고객은 자신이 구상한 전략 아이디어를 '전략 보관함'에 여러 개 넣어두고, 시뮬레이션 비교를 통해 최종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 / 대신 오늘&내일 글로벌 1등 기업 펀드

'리틀 엔비디아' 발굴... 장기투자 전략 구사

대신증권이 성장성 높은 기업에 장기투자하는 펀드를 선보이고 있다. 글로벌 탑티어 자산운용사인 캐피탈그룹과 협업해 출시한 해외 주식형 펀드 '대신 오늘&내일 글로벌 1등 기업 펀드'다. 이 상품은 캐피탈그룹이 운영하는 'New Perspective 펀드'에 100% 투자하는 재간접 주식형 펀드다.

대신 오늘&내일 글로벌 1등 기업 펀드는 매 10년 새로운 메가트렌드를 선도할 기업을 발굴해 장기 투자하는 액티브 전략을 구사한다. 바텀-업 방식을 통해 다양한 수익원, 우수한 자본건전성, 혁신적 경영진과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 본사나 상장국 중심이 아닌 글로벌 매출 비중으로 종목을 스크리닝하며,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따른 수혜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멀티매니저 시스템으로 펀드매니저 리스크를 줄였다. 국가·성별·나이 등에 따라 고르게 분포된 9명의 운용역이 각자 특화된 영역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운용역별 전문성은 높이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이다. 주요 운용역은 캐피탈그룹에서 30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다. 각각 LA, 샌프란시스코, 홍콩, 싱가포르, 런던 거점으로 글로벌 커버리지 대응한다. 연간 1만4000개 이상의 기업 탐방을 통해 통



합 리서치를 구축한다.

New Perspective 펀드는 지난 1973년 3월 31일에 출시돼 50년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세계주식지수(ACWI)를 꾸준히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시장 스타일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꾸준한 성과 우위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973년 이후로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였다. 운용에 있어서는 장기투자, 낮은 회전율이 특징이다. 평균 종목별 투자기간 5년 이상 비중이 60%, 8년 이상 비중이 38% 수준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한다.

신한투자증권 / 글로벌테마 로테이션 ETF랩

급변하는 시장 속 믿음직한 '전문가의 손'

신한투자증권은 자사 리서치 및 운용 역량을 결합한 '글로벌테마 로테이션 ETF랩'을 추천한다.

해당 상품은 글로벌 테마주식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로 투자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테마를 교체해 운용하는 랩 서비스다. 업계최고 수준인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와 상품전략 전문부서 투자상품솔루션부의 투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랩운용부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리밸런싱을 실시한다.

글로벌테마 로테이션 ETF랩은 동일 비중 보유를 투자전략으로 한다. 정교하게 설계된 유니버스 종목 중 랩운용부의 의사 결정을 통해 전망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4개 내외의 테마를 선택해 최종 운용한다. 또한,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를 통해 특정 종목 및 섹터에 편중되는 위험을 감소시킨다. 상대적인 소외 가능성을 낮춰 주도 섹터가 하락하더라도 안정성을 강화해주는 것이다.

시장 하락기로 접어드는 국면에서는 일부 비중을 현금 혹은 대형 우량주 ETF 편입을 통한 포트폴리오 조정애 나선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글로벌테마 로테이션 ETF랩을 통해 신한투자증권의 우수한 리서치·운



용 역량을 글로벌 주식시장으로 확대해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업계최고의 분석 노하우로 리서치와 상품전략을 통한 신한투자증권만의 랩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로테이션 ETF랩의 최소 가입 금액은 3000만 원 이상이며, 신한투자증권 각 지점 및 모바일('신한 SOL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수수료는 후취 연 1.3%(일반형) 또는 선취 1.0%(최초 1회)에 후취 연 0.5%가 더해지는 유형 중 선택할 수 있다.

Class가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IG BANG**®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 부문

- ①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 ②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③ 최적화 기술 1위 → 20,684,160 가지 스펙 초격차
-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제 우선 (본사 매장)
가격 영원 불변 정책



“팹리스 업체간 협업 중요…협회가 가교 역할 할 것”

김경수 팹리스산업협회장
국내 팹리스 기술 경쟁력 충분
회원사 코어기술 DB 구축 연결
판교 중심 기업·학교들 모여
중급 수준 인재 양성도 주도

“(국내 팹리스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집이 커지면서 협업이 중요해졌다. 협회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국내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협회가 중심이 돼 기업 간 협업 시스템 구축,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수 회장(넥스트칩 대표이사·사진)은 22일 오전 경기 성남시 넥스트칩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내놔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는 팹리스끼리 협

력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았다”며 “이제는 칩셋이 대세다. 이것을 하려면 핵심 IP (설계자산)에 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간 누가 어떤 기술을 가졌는지 잘 알기 힘들어 어려웠다”며 “협회가 각 회원사의 핵심 코어 기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서로 연결해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판교를 중심으로 기업과 학교 등이 모이고 있는데, 협회가 앞장서서 인재 양성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판교에) 가전대, 카이스트, 서강대 등이 들어올 예정이다. 학교 위주로 인력양성센터를 준비하고 있다”며 “단순히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육하는 게 아니라 석·박사 프로그램까지 연결해 학위까지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의 변화에 따른 기존 인력의 재교육도 중요한데, 이것은 중급 교육 과정”이라며 “특정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 미래 기술에 대한



트렌드 교육 등 협회가 중급 교육의 컨트롤 타워가 돼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제 막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팹리스 특성상 실제 상품이 나오지 않으면 검증하기 어렵다”며 “파운드리 기업들과 협력해 레거시 공정을 써야 하는 작은 팹리스 업체들에게 MPW(멀티프로젝트웨이퍼)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

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글로벌한 파운드리도 많다. 이 쪽에도 네트워크를 잘 쌓아 협회에서 테크데이를 하는 등의 과정도 필요하다”며 “투자를 잘 받지 못하고, 인력면에서 어려운 업체들에게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팹리스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김 회장은 “한국은 인력 퀄리티가 좋아 적은 수의 인력으로도 빠르게 칩을 내놓을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삼성파운드리 등 소통이 잘 되는 파운드리도 있고, 글로벌 OSAT(반도체 후공정) 기업들도 국내에서 제2공장을 갖고 있거나 영업을 하고 있다. 에코시스템도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팹리스 업계에서 스타가 나타날 때가 됐다. 한국의 엔비디아가 나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사진제공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이랜드이츠, 김준수 대표 선임
황성운 대표와 2인 대표 체제



애슬라·자연별곡 등 외식브랜드를 운영하는 이랜드이츠가 2인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이랜드이츠는 신임 대표이사에 김준수(사진) 전 이랜드김스클럽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랜드이츠는 황성운 단독 대표 체제에서 황성운·김준수 2인 대표 체제로 변경된다.

황 대표는 애슬라·자연별곡 등 뷔페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전반 사업 부문을 담당한다. 김 신임 대표는 베이커리카페 브랜드 프랑제리 사업 부문을 맡게 된다.

김유연 기자 kyy0907@

현대오토에버, 김선우 상무 영입
삼성전자·볼보 출신 ERP전문가

현대오토에버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ERP 기술리더와 ITO 운영 총괄을 맡아온 김선우(사진) 상무를 신설 ERP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선우 상무는 삼성전자와 볼보에 재직하면서 제조 부문에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했으며, 비즈니스와 IT의 통합 관점에서 전략 및 아키텍처 수립의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송영록 기자 syr@

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동남아 현장경영

인니 유화단지·말레이 동박공장
화학군 내 계열사 찾아 현장점검

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이사가 첫 해외 현장 경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업장 운영 및 고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3일 롯데케미칼은 이 대표가 기초소재사업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LOTTE Indonesia New Ethylene Project) 건설 현장과 첨단소재사업 컴파운딩 공장, 롯데 화학군 소속의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말레이시아 동박공장과 롯데알미늄 인도네시아 패키징 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날 국내 사업장인 여수, 울산 공장에 이어 두 번째 현장경영으로 주요

해외 사업장 방문은 대표이사 취임 후 첫 번째다.

이 대표는 18일 인도네시아 LINE 프로젝트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계획대비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주문했다. 그는 “롯데케미칼이 오랜 기간 쌓아온 다양한 해외 사업장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현지에 최적화된 사업운영 및 글로벌 생산역량을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90%의 공사 진척율을 보이는 LINE 프로젝트 건설은 자회사인 롯데케미칼타이탄과 합작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반텐 주에 초대형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 이후 본격가동으로 연간 에틸렌 100만 톤(t), 프로필렌(PL) 52만t, 폴리프로필렌(PP) 25만t 등을 생산할 예정으로 롯데케미칼의 글



이훈기(왼쪽) 롯데케미칼 대표이사가 직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 롯데케미칼

로벌 생산 경쟁력을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 등의 상호 전략적 가치도 끌어낼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후에는 롯데화학군 소속 회사인 롯데알미늄의 인도네시아 패키징 공장을 찾았다. 다음날 첨단소재사업 인도네시아 고부가합성수지(ABS), 폴리카보네이트

(PC), 폴리프로필렌(PP) 컴파운딩 공장을 둘러보며 사업장 운영 및 고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17일에는 말레이시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동박 공장을 방문했다. 품질 일류화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전략적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을 주문하며 이차전지 소재사업을 점검했다. 이동욱 기자 toto@

가맹점주들과 상생경영·동반성장 BBQ 전국 패밀리 간담회 막내려



윤홍근(가운데)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전국 패밀리 간담회'에 참석해 가맹점주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제너시스BBQ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경기도 이천시 치킨대학에서 패밀리(가맹점주)와의 상생경영과 동반성장을 위해 진행한 '2024 전국 패밀리 간담회'를 성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차례에 걸쳐 전국 패밀리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지역별로 나눠 총 2000여 개 매장 약 4000여 명의 패밀리가 참여했다.

김지영 기자 kjj42@

유인촌 장관이 ‘책의 날’ 맞아 국무위원들에 선물한 책은

이수지 그림책 ‘여름이 온다’
‘이어령의 강’ 등 4권 골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계 책의 날’을 맞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 등 총 4권의 책(사진)을 선물했다.

23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 유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수지 작가의 ‘여름이 온다’ △고(故) 이어령 선생의 ‘이어령의 강’ △이호건 작가의 ‘미술관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나다’ △강인욱 작가의 ‘세상 모든 것의 기원’ 등을 선물했다.

유 장관은 한 총리에게 ‘여름이 온다’와 ‘이어령의 강’ 두 권을 선물했다.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는 네 권 중 두 권을 임의로 선택해 선물했다.

‘여름이 온다’는 2022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작이다. 음악과 이미지



그리고 이야기가 혼합돼 어른과 아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책이다. 비발디 ‘사계’의 구성을 따라 전개되는데, QR 코드를 활용해 ‘사계’를 들으며 책을 읽을 수 있다.

‘이어령의 강’은 젊음의 본질에 대한 이어령 선생의 통찰을 담은 책이다. 2008년 서울대학교 입학식 축하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생의 강연 10편을 엮었다. 젊음의 가치와 조건, 자격 등을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소화한 책이다. ‘미술관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나다’는

미술과 철학을 동시에 담은 인문교양서다. 저자는 명화 속 메시지에 철학적 시선을 덧입힌다. 인간이란 모두 같은 방향과 고민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화와 철학으로 녹였다. 2022년 세종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상 모든 것의 기원’은 인류 삶의 다양한 기원을 찾아 떠나는 고고학 서적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누리는 사물, 문화의 기원과 내력을 발굴 현장의 최전선을 누벼온 고고학자의 시선에서 흥미롭게 전달한다.

송석주 기자 ssp@

부음

▲유영욱 씨 별세, 김명화(전 우송대 교수) 씨 모친상, 원종규(코리안리 재보합 대표이사 사장) 씨 장모상 = 22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02-2072-2020

▲조현호 씨 별세, 조한병(한국예탁결제원 안전관리부 수석위원) 씨 부친상 = 22일, 태안군보건의료원상례원 2층 1분향실, 발인 25일, 041-671-5243

▲신태삼(전 코트라 비상계획팀) 씨 별세, 김동선 씨 남편상, 신현석·현웅·현경 씨 부친상 = 23일,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112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30분, 02-857-0444

▲심명섭 씨 별세, 이영신 씨 남편상, 심준·주연·주인·정운·정연 씨 부친상, 김윤희·심유나 씨 시부상, 안병철·최규삼(베이비뉴스 대표이사)·임경규·최종철 씨 장인상 = 23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30분, 063-250-2442

박덕배의 금융의窓



가천대 겸임교수
경제학과

최근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자 간간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소환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기업과 가계의 대출 상환능력이 악화된 탓도 있지만 당장은 부동산 PF 부실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현재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정이자여신비율은 20%대 후반까지 치솟았던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비교했을 때 연체율 증가 속도와 증가 폭 등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향후 PF 대출 사업장 재구조화, 정

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들어서 수신이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셋째, 영업수지가 적자로 급반전되고 있다. 한동안 큰 폭의 흑자를 보였던 영업이익이 2023년 들어 큰 폭의 적자로 반전되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계에 나온 2023년 저축은행의 영업손실은 7000억 원 이상이다. 이자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자비용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자수익이 큰 폭 감소하고, 미래를 위한 대손충당금 적립도 높였기 때문이다. 더더욱 현재의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도 안심하기 어렵다. 경기회복 둔화, 부동산 경기침체 등 저축은행의 주변 여건이 상당 기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악화 속에서 금융시장의

제2저축은행 사태 대비할 때

상화 계획 등을 발표하고 금융사엔 손실 흡수능력을 더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에 집중하고 있어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위기는 없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를 보아 앞으로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이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저축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금리 수준이 급등하였다가 이후 물가가 하락하면서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수신 금리는 하락하였지만, 여신금리는 여전히 높게 형성된 수준에서 머물면서 예대금리 차이가 2020년 1월 6.79%에서 2023년 3월 8.70%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만큼 저축은행의 영업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저축은행의 여·수신 영업력이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부터 약 2배 가까이 급증했던 저축은행의 여·수신이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12%p 하락

신뢰가 무너져 불안심리가 팽배해지면서 부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그 위기감이 저축은행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행권 등에서도 조기 자금상환 압력이 거세지면 금융시장 전체에 큰 혼란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 위기가 새마을금고,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전체 위기로 확산하면서 다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도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하다가 1년 만에 큰 위기를 맞았다. 이대로 가다간 1년 후에는 큰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발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발채무 가능성이 높은 부실채권의 정리, 저축은행 모기업의 충분한 자금확충 등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저축은행의 탄생 목적에 맞게 금융산업 내 저축은행의 역할 방향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논현로

곽 노 성

동국대 명예교수
Solbridge경영대 석좌교수



바 있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용어는 비단 탄저병으로 망쳐버린 우리 사과 가격뿐만 아니라 곡물 가격 또한 동시에 급등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은 여기에 에너지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위기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고(高)이자율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인플레·고금리에 국가부채는 늘고
곡물·에너지 불안에 소비위축 몸살
전략산업 육성에 여야 공동대처를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안겨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에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경쟁은 결국 그럴 여유가 없는 국가들을 소외시킨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조금 규모를 실제로 시장의 가격기능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른바 ‘바닥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 현상을 재연할 가능성을 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의 경우도 마찬

가지다. 단지 전쟁의 경우는 비용 경로 대신 인플레이션 경로를 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두 변수 모두 중앙은행의 기준 이자율 인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여 한국 경제의 고금리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외부요인의 충격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있다.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정책변수의 선제적 활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 그리고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과 인재양성 등 비용 효과적 지원방법의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고 생각된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 정부의 추진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 성공의 관건은 경제 안정과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이슈라는 공감대 확립에 있다고 본다. 거시경제의 안정은 어느 특정 정당의 몫이 아니다.

이는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마찬가지다. 적대감을 품고 있는 일부 편협한 정치인들의 선동에 흔들리

면 가뜩이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은 가히 회복불능 수준이 될 것이다.

‘바닥으로의 경쟁’이 가져올 불행한 결과가 결코 우리 경제에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 야당 정치인도 여당 정치인도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크나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우리 경제의 활력 유지와 고령세대 부양을 위한 재정부담 경감이라는 주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단기적으로 대처하고 중단기적으로 계획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명심 의장’ 보게될 새 국회

노트북 너머

정 호 영

정치경제부 기자



럼없이 나온다.

조 당선자는 최근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은 당연히 저’라며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도 시사했다. 추 당선자도 “국회의장이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며 ‘혁신 의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락은 결국 국 친명(친이재명)계 표심이 좌우한다. 애당초 정부여당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의장이 됐을 때 그 권위를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을까. 개원 직후 강대강 대치가 뻔한 여야 사

이에서, 때로는 친정의 비판도 감내해야 할 국회의장 후보로서 부적절한 발언인데도 이를 지적하는 당내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이대로는 중앙·입법권력이 어느 당 손에 들어가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난다고 한다. 물론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로 ‘무조건 해야 한다’, ‘절대 안 된다’ 고만 한다면 양당이 선거마다 킁배 싸워주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고,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토대 정도는 만드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이참에 국회의장 선출도 당내 경선을 없애고 본회의에서 여야 찬성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로 정하는 방식으로의 변경도 고려할 만하다.

moonrise@

이투데이, 말투데이

☆ 장 폴 고티에 명언

“디자인은 사회의 움직임과 연결돼야 한다.”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다. 피에르 가르렝의 보조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후에 자신만의 컬렉션을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했다. 그의 작품은 젊고 전위적이며 섹시한 이미지로, 상식에서 벗어나 그로테스크한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장 전위적인 디자이너로 불린다. 오늘은 그의 생일날. 1952~.

☆ 고사성어 / 견위수명(見危授命)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다는 뜻. 견위치명(見危致命)은 같은 말. 출전 논어(論語) 현문(憲問)편. 자로(子路)가 성인(成人)에 관해 묻자, 공자(孔子)는 지혜·정령·용기·재주·예악(禮樂)을 두루 갖춘 사람이라고 대답한 뒤 덧붙인 말. “그러나 오늘날의 성인이야 어찌 반드시 그러하겠는가? 이로움을 보면 대의(大義)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見利思義 見危授命], 오래전 약속을 평생의 말(약속)로 여겨 잊지 않는다면, 또한 마땅히 성인이라 할 수 있다.” 공자는 지금의 성인은 옛날의 성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위의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인이라 할 만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것이다.

☆ 시사상식 / 레그테크(RT: RegTech·Regulatory Technology)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정보기술(IT)과 규제를 결합해 규제 관련 요구사항 및 절차를 향상하는 기술 또는 회사를 뜻한다. 금융서비스 산업의 새 영역이자 일종의 핀테크(FinTech)다. 레그테크회사들은 수작업의 자동화, 분석·보고절차의 연결, 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의 창출, 절차 관련 앱(application)에 의한 데이터 자동 분석, 핵심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규제 당국 앞 송부용 보고서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멧있는 숲 연구소장

R&D ‘덧칠 정책’ 경험 아닌 증명

“올해 연구비가 깎이면서 심한 경우문을닫는 연구실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략) 후배들에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생명과학 분야 석학인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기초과학연구원RNA 연구단장)가 18일 서울 고등과학원에서 열린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에서 후배 이공계 학생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스스로 내적 동기를 갖고 연구에 매진하는 후배들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성문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연구자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도 사실”이라고 몸을 낮췄지만, 대학 이공계 연구실은 마비되고 있다. 뒤늦게 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에게 매달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곳곳에서 연구인력 감축과 기존 연구 파행·축소까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단적인 사례로 서울대학교는 정부에서 받는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20% 줄고 학생 연구원 인건비만 200억 원이 삭감됐다. 대학 측은 전체 학생 연구원의 5분의 1인 1600명분의 인건비가 증발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공계 대탈출’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싶다.

이달 초 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R&D다운 R&D’를 위한 정부의 개혁 작업이 완결됐다고 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절체절명의 상황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말하는 예산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연구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보완하는 조치로 읽힌다. 단순한 ‘예산 복원’이 아니라, 개혁이란 과제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개혁으로 환부를 도려낸 뒤, 도전과 혁신을 선도하는 R&D로 전환한다는 의

데스크 서각

안철우
미래IT부장



미다.

그러나 정부는 한 차례도 부조리한 R&D 예산 집행 사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주어 말하던 ‘나눠먹기 행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실제 그랬다면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R&D 사업 원점 재검토’ 지시 후, 최근까지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은 뒷수습을 위한 ‘덧칠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영표 KBS 축구해설위원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실패한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을 향해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일침을 가한 적이 있다. 국가 R&D 사업은 1년새 대통령 맘대로 줄었다 늘렸다 경험하는 정책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로 R&D 혁신 역량을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미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파괴적 혁신’이 전 세계를 흔들고 있다. 미국의 초거대 AI 개발사들은 막사급 AI 인재도 씹쓸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최악의 AI 인재 유출국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미국 스탠퍼드대가 발간한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AI 인력 밀도는 0.79%로 이스라엘·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이지만 해외로 순수출된 AI 인재 수는 ‘-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1년 만에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역대 최대로 증액”으로 국가 R&D 예산에서 특단의 인재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험 아닌 증명의 시간이다.

R&D예산 삭감에 연구파행 현실화 의대증원 맞물려 이공계탈출 자극 혁신 강화해 성장동력확충 보여야

진료실 풍경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다.” “혹시 오진일 가능성도...” “주여, 매일 꽤유 기도름...”

동문 단톡방이다. 위로, 놀람, 안타까움, 현실 부정, 신에 대한 분노, 신에 대한 기도... 다양한 내용의 단문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산부인과 전문의로 개업해 승승장구하며, 주변의 부러움을 사던 친구. 남자답고 호탕하고 환활한 키에 만능 운동선수였던 그. 바쁜 전공의 생활 중에도 내 결혼식에 참석해 주었던 그. 그가 체장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주변의 걱정과 달리 그는 여전히 밝고 긍정적이었다. 최신 항암 치료를 받아가며 여전히 병원 경영에 매진했고, 운동도 거르지 않았다. 나를 비롯한 친구들도 그에게 기적이 오기를 바랐던 건지 현실을 부정했던 것인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평소처럼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못 채운 어느날, 우리는 그의 부고를 받게 되었다.

장례식장에서, 아직 병아리 같은 자녀들과,

생활고에 시달려 본 적 없던 해맑고 어린 그의 처를 보자 비로소 그의 부재가 실감이 되었다. 며칠 전, 환자 한 분이 내원하였다. 그는 인문학부 교수로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었었는데, 요즘 예전에 공부했던 그 수많은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서서히 삭제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아는가? 이걸 도둑맞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자넨 아마 모를거야...” 갑자기 깊은 공포감이 내게도 몰려왔다. 일요일 저녁, 석촌호수를 뒀던 중이었다. 불현듯, 나이 들면 못 뛰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우울에 폭 젖어 뛰던 중, 갑자기 무언가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거야! 지금 이 순간 내 무릎은 안 아프고, 마음껏 뛸 수 있어. 그거면 된 거야.” 나도 시한부 인생이다. 왜 그걸 이제 알았을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이다.

최영훈 닥터최의원세마음상담의원 원장

사설

수출 살아나는데 ‘위기 추경’ 요구하는 巨野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어제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UBS는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씨티와 HSBC도 기존보다 각각 0.2%포인트(p), 0.1%p 높게 잡았다. 반도체·자동차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바클레이스는 “하반기에도 기대 이상의 수출 실적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우리 수출 전선에 부는 바람은 봄철의 꽃샘바람보다 초여름의 훈풍에 가깝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은 작년보다 3.1% 증가하면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565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3.1% 늘었다. 반도체의 경우 2022년 6월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치인 117억 달러를 수출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4대 IT 품목인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는 수출이 동반 증가했다. 24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 아직 안심할 순 없지만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살아나는 징후는 뚜렷하다.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는 274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재고자산은 총 179조5968억 원으로 전년

(179조459억 원)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는 민간 기업분석연구소의 진단도 있다. 그동안의 재고 증가세가 사실상 멈춘 것으로, 국내 기업 경기에 별이 들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 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무분별한 돈 풀기를 압박하는 저질 포퓰리즘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경제는 심리라고 했다. 정치권의 공포 마케팅 때문에 없던 위기마저 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물론 걱정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내수의 더딘 회복세부터 문제다. 국내 경기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짓눌려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고물가다. 그러나 고고질병을 잡으려면 긴축적인 정책조합이 필수다. 민생지원금 따위를 마구잡이로 푸는 것은 외려 자충수가 된다. 통화팽창과 물가인상을 부르게 마련이다. 인플레이션은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빚는다. 거야는 그런 부작용을 원하는 것인가. 이를 뻔히 알면서도 25만 원으로 민심을 매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엄중히 묻게 된다.

지난해 국가재무는 1127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재정준칙 도입이 급선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거야가 21대 국회의 잔여기간에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다면 박수가 쏟아질 것이다. 왜 그런 길은 외면하고 나라 곳곳만 축내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제로섬 사고’, 소통과 타협으로 극복을

시론

이화택
경제칼럼니스트



제로섬(zero-sum)은 경제이론에서 여러 사람이 서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모든 이득의 총합이 항상 제로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 미국 학자 네 명이 제로섬 사고방식이 세대와 영역을 초월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는가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며, 분배를 위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장 큰 파이를 갖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을 막고자 한다. 부족한 자원을 놓고 경쟁할 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룹과 협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난민, 연금수급자 또는 복지제도의 수혜자를 위한 사회적 혜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적절한 혜택으로 치부된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몫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 불안한 의사들, 의료개혁 협조 안해

연구에 따르면, 어떠한 사회집단이 제로섬 사고방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를 조사하였다. 무엇보다도 개인적 경험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민와서 성공한 사람들은 제로섬 사고방식을 덜 적용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한 열린 사회의 기회를 강조한다. 스스로 차별을 경험한 사람, 교육의 기회나 취업 시장에서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 사람들은 제로섬 사고방식에 훨씬 더 강하게 사로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MZ세대 젊은이들은 제로섬 사고방식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지난 20년 동안 경제적 변명은 이전 수십 년보다 느리게 증가했다. 경제가 저성장하는 동안 젊은이들은 적은 일자리를 위한 격심한 경쟁에 내몰렸다. 경쟁과정에서 ‘너의 취업은 나의 실업’이라는 제로섬 사고방식에 자연스럽게 젖어든 것이 아닌가 싶

다. 둘째 이들은 분명히 부모세대와는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자랐다. 젊은이들은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투쟁이 얼마나 강력한지 경험하였다. 그 결과 이들은 제로섬 사고방식과 그에 따른 정치적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국회, 소통 강화해 공존문화 찾아야

정치영역에서도 제로섬 사고방식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일례로 의료개혁의 위기는 제로섬 사고방식을 쌍방에게 강요한다. 미래가 불안하거나 불투명한 의사들은 자기들이 잃게 될 잠재적 이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의료개혁이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어떻게 기여하게 될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제로섬 사고방식이 대중 담론에서 점점 더 자리를 잡게 되면서 한 사람의 이득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실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의료개혁부터 노동개혁, 연금개혁,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이민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주요 과제는 상호 협력과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상호배제를 중단하고 이러한 합의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출해야 한다. 이제 각정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고 균형을 맞추며 합의점을 찾아 지대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첫걸음은 소통이다. 정치는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다른 의견과 가교를 쌓고, 다양한 견해의 민주적 공존을 강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HYUNDAI
MOTOR GROUP

THE WORLD'S BEST CAR

전기차의 품질과 성능을
세계에서 인정받은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전기차의
새로운 길을 만들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수상행진
6개월간 13개국에서
52개 부문 수상 [23년 9월
24년 3월]

WORLD CAR AWARDS
3년 연속
세계 올해의 자동차 / 세계 올해의 전기차 동시 선정
22년 아이오닉 5 / 23년 아이오닉 6 / 24년 EV9

2년 연속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 선정
23년 EV6 GT / 24년 아이오닉 5 N

★★★★★
“유럽 등 세계가 인정한 최고 안전 등급 획득”
22년 아이오닉 6, EV6, GV60
23년 EV9, GV70·G80 전동화 모델 **유로 NCAP**



QR코드를 스캔하고 세계가 주목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상 소식을 만나보세요